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금 재 호1)

I. 머리말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의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외환위기로 이후 촉발된 일자리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청년이다. 청년 취업난은 사회 초년기에 인적자원의 형성을 저해하여 생애에 걸친 장기적 소득손실을 발생시킨다. 2013년 18~29세 청년의 실업률은 8.0%로 전체 실업률 3.1%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부족, 그리고 대학진학률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18~29세 청년 취업자의 규모는 [그림 1]과 같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취업자 규모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율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50.9%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림 1] 18~29세 모든 청년의 취업자(천명)와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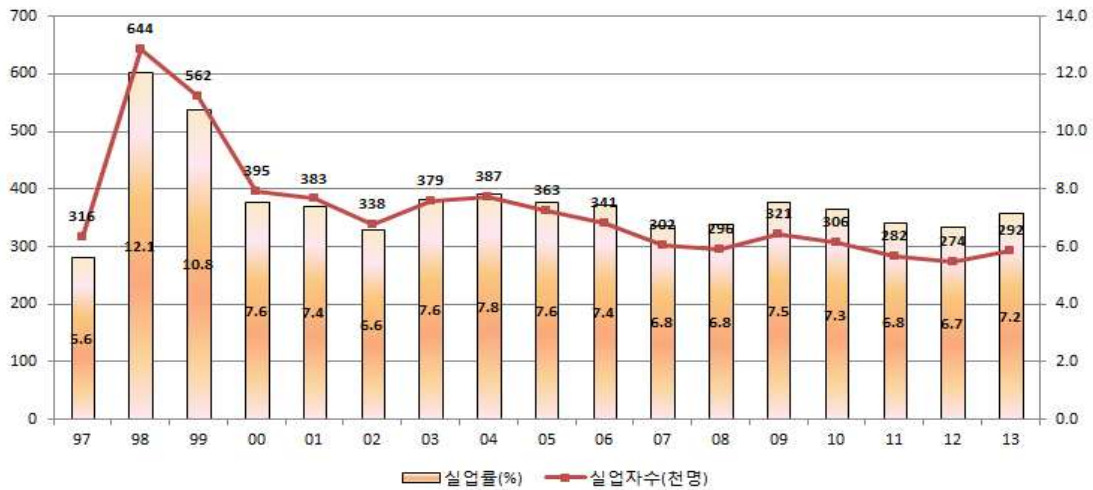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eum@kli.re.kr

고용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8~29세 실업률은 2000년대에 들어 변화폭이 크지 않다. [그림 2]처럼 인구규모의 감소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지만 실업률은 2000년 이후 5.6~7.8%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고용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도리어 줄어드는 특징적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률이 청년의 취업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2] 18~29세 청년의 실업률과 실업자 규모



주: '지난 4주내에 구직활동'요건을 적용한 실업률 및 실업자 규모는 2000년부터 발표되었다. 따라서 시계열적 일관성을 위해 여기는 '지난 1주내 구직활동'요건을 적용한 실업률 및 실업자 규모를 사용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여기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두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청년층 고용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종단면적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수가 작고, 인구구조 및 지역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석이 필요하였다.

II. 청년층의 취업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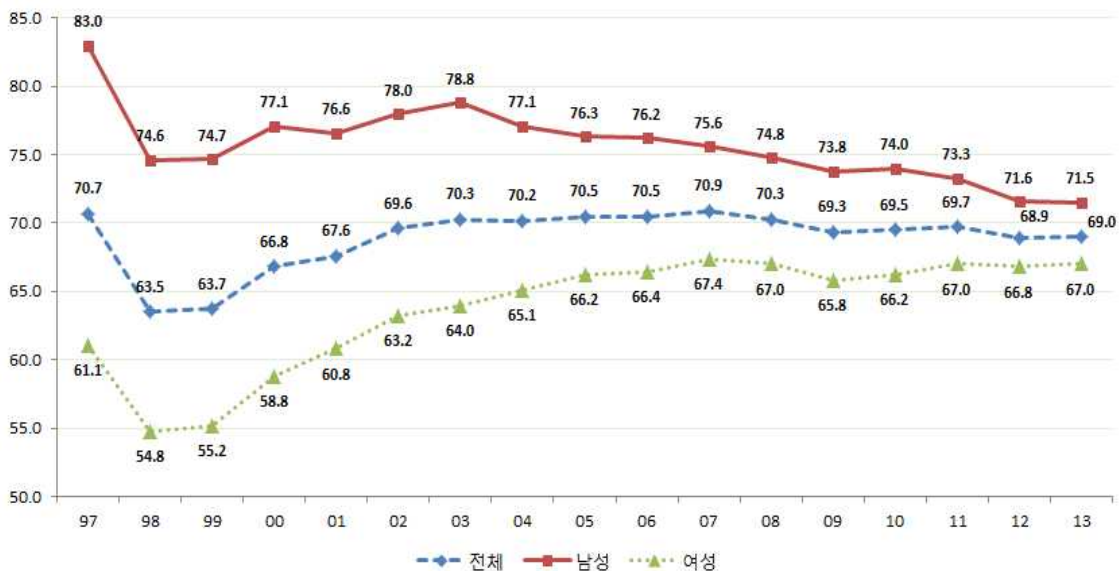
1. 성별 고용률 격차의 완화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영속적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²⁾ 재학생의 아르바이트까지 취업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청년취업난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만약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재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고 그 결과 청년고용률이 상승하였다면 이는 청년취업난의 실상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취업난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졸업·중퇴한 청년으로 제한하여 고용률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 고용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1]과 비교해보면 분석대상을 졸업·중퇴로 제한하였을 때, 고용률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2003년에 70.3%이었던 졸업·중퇴한 18~29세 청년의 고용률은 2013년 67.0%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이 재학·휴학생의 비중 증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의 고용률이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4.8%포인트에 달하였던 남녀의 성별격차가 2013년에는 4.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그림 3] 졸업·중퇴한 18~29세 청년의 성별 고용률 변화: 1997~201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재학, 휴학 중인 18~29세 청년의 고용률은 2013년 24.5%로 나타났다.

2. 성별·연령대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

다음으로 취업난이 모든 청년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1997~201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성별·연령대별로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18~29세 청년들을 3세 단위로 구분하여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본다. 15~17세는 대부분이 재학 또는 휴학인 상태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³⁾

<표 1> 졸업·중퇴한 18~29세 청년의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구 분	남녀 전체				18~29세 모두		
	18~20세	21~23세	24~26세	27~29세	전체	남성	여성
1997년	59.9	74.6	73.1	69.5	70.7	83.0	61.1
1998년	49.0	66.6	64.8	65.2	63.5	74.6	54.8
1999년	49.5	66.0	65.2	65.4	63.7	74.7	55.2
2000년	49.9	69.8	69.9	68.1	66.8	77.1	58.8
2001년	50.3	71.7	71.2	68.3	67.6	76.6	60.8
2002년	53.3	73.6	71.8	70.3	69.6	78.0	63.2
2003년	56.3	72.3	74.4	68.8	70.3	78.8	64.0
2004년	52.6	71.4	73.7	70.0	70.2	77.1	65.1
2005년	49.7	70.1	73.6	71.1	70.5	76.3	66.2
2006년	48.2	70.4	73.3	70.8	70.5	76.2	66.4
2007년	45.8	69.9	73.1	72.0	70.9	75.6	67.4
2008년	45.1	67.8	70.7	73.4	70.3	74.8	67.0
2009년	39.8	65.7	71.1	72.1	69.3	73.8	65.8
2010년	38.8	66.1	71.6	73.0	69.5	74.0	66.2
2011년	38.8	64.3	72.4	73.8	69.7	73.3	67.0
2012년	35.5	64.1	71.6	74.8	68.9	71.6	66.8
2013년	38.0	65.3	70.7	74.7	69.0	71.5	67.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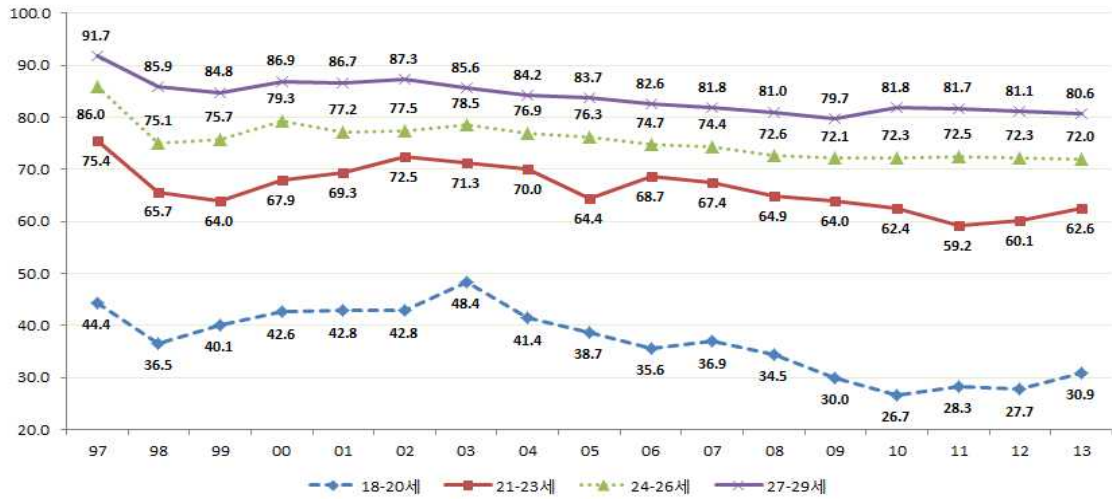
연령별로 세분하여 청년고용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2000년 대 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것이 아니다. 27~29세에서는 고용률이 도리어 상승하였다. 2000년 68.1%이었던 이들 연령대의 고용률은 2013년 74.7%까지 높아졌다. 또한 2003년 이후 18~20세, 21~23세 및 24~26세 모두 고용률이 하락하지만 하락폭에 있어서는 18~20세가 가장 두드러져 어린 청년층에서 고용률 하락이 상

3) 2013년 15~17세 청소년 중 97.0%가 재학 또는 휴학 중이었다. 이러한 비중은 1997~2013년 큰 변화가 없다.

대적으로 현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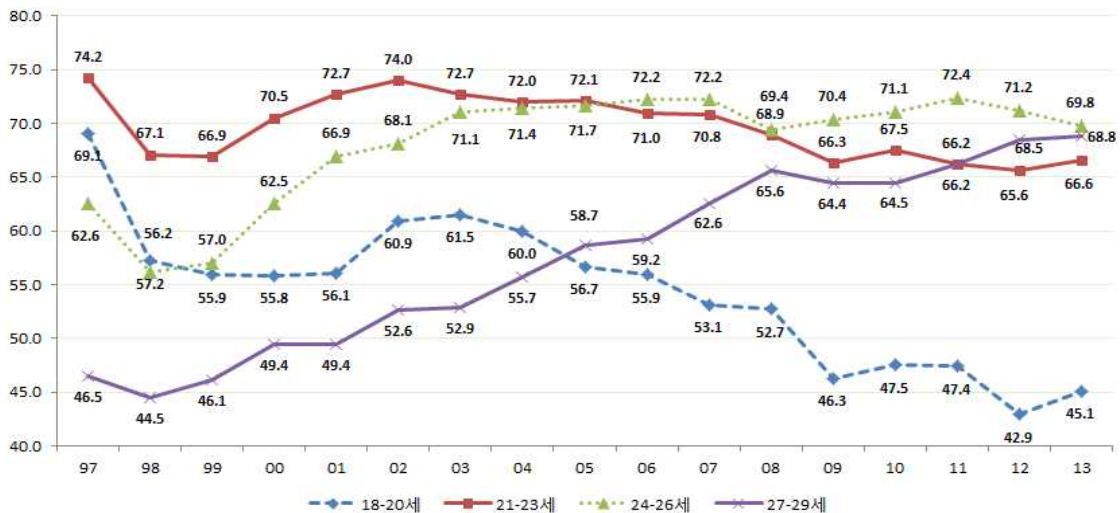
다음 단계로 성별·연령별에 따른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며, 낮은 연령대에서 하락폭이 더욱 크다. 둘째, 여성의 고용률 변화는 남성과 차이가 있다. 18~20세 및 21~23세 청년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2003년 이후 하락하였지만 그 하락폭은 남성보다 작다. 반면 27~29세 여성고용률은 1998년 이후 계속 상승하였다. 따라서 27~29세 청년고용률의 상승은 여성고용률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4] 졸업·중퇴한 18~29세 청년남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1997~201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5] 졸업·중퇴한 18~29세 청년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1997~201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이처럼 통계청 원시자료(raw data)의 분석결과 청년취업난으로 청년층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가 큰 이유에 대해 여성의 학력향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의 강화, 결혼 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취업시장에 있어 여성의 경쟁력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을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18~23세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며, 성별 변화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어린 청년들의 고용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재학 또한 휴학 중인 청년들의 비중이 늘어났을 경우이다. 통상 재학·휴학 중인 청년들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취업의지도 졸업·중퇴한 청년보다 낮다. 만약 재학·휴학 중인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어린 청년들의 고용률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재학·휴학 중인 청년의 비중 증가 원인으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이 졸업을 기피하고 있을 가능성과 상급학교 진학률의 상승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나이 어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이다. 학교를 졸업한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들은 대부분 여성이거나 고졸(또는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다. 만약 노동시장의 취업난이 여성이나 저학력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나이 어린 청년들의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는 기대수준(유보임금⁴⁾)의 조정속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고 직장탐색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구직자는 현실에 부응하여 자신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낮추게 되고, 그 결과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같은 학력이더라도 나이 어린 청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보임금을 높게 설정하는 반면 나이가 있는 청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유보임금을 하향 조정하여 취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왜 나이 어린 청년층의 고용률이 더 낮은가?’에 대한 설명으로 ‘왜 나이 어린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폭이 더 큰가?’의 질문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취업난이 심화되었을 때 나이 많은 청년이 시장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유보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반면 나이 어린 청년은 반응속도가 느려 유보임금의 하락폭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결과 나이 어린 청년의 고용률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4)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의 임금이다. 기업에서 제시하는 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으면 일자리에 취업하고, 그 보다 낮으면 취업하지 않고 계속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통상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유보임금도 낮아진다.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유보임금 및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유보임금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넷째는 취업난의 악화로 인해 저학력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과 관련된다.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어린 청년의 학력 수준은 나이 많은 청년보다 낮을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고졸 이하의 고용률 하락이 대졸 이상의 고용률 하락보다 더 심각하다면 이는 취업난의 심화로 인해 저학력자가 더욱 큰 피해를 보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졸업·중퇴한 청년의 경우에도 ‘왜 나이 어린 청년의 고용률 하락폭이 더 큰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뒤의 <표 7>과 [그림 10]~[그림 12]는 졸업·중퇴자의 학력별 고용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졸 이하의 고용률 하락폭이 4년제 대졸자의 고용률 하락폭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졸의 고용률은 2003년의 65.6%에서 2011년 46.9%로 28.5%가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4년제 대졸의 고용률은 17.8% 하락하였다. 전문대졸의 고용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는 대졸 학력자들이 전문대졸의 일자리를 잠식하였지만 동시에 전문대졸 학력자들도 고졸 이하의 일자리를 잠식하였고, 그 결과 고용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⁵⁾ 따라서 취업난의 악화로 인해 저학력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았고, 이는 저학력자들의 비중이 높은 나이 어린 청년의 고용률 하락폭이 더 큰 결과로 나타났다.

■ 재학 중인 청년 비중의 변화

20대 초반 어린 청년들의 고용률 하락이 무엇에 기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들의 비중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처럼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늘어났다. 18~29세의 경우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은 1997년의 22.7%에서 2013년에는 33.8%로 높아졌다. 특히 18~20세의 경우 재학 비중은 1997년의 58.5%에서 2013년 72.5%까지 상승하였다.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첫 번째는 고학력화의 계속적 진행이다.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는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연기하는 것이다. 졸업 후의 취업이 걱정되고 취업준비를 위해 수업학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미래가 불안한 학생들 모두가 휴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수업을

5) 이러한 주장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받는 학기를 연장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8학기에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9학기, 10학기까지 수업을 듣는 것이다. 취업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 학기를 연장하는가를 파악하는 간접적 방법의 하나는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2003년 이후 고학력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만약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 증가는 취업난으로 인해 수업학기를 연장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표 2> 연령대별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

구 분		연령대				
		18~20세	21~23세	24~26세	27~29세	18~29세 전체
전체	1997년	58.5	25.6	13.5	3.1	22.7
	1998년	57.7	27.5	12.8	3.1	22.8
	1999년	59.0	27.4	14.9	4.0	24.2
	2000년	58.2	28.6	15.2	5.0	24.9
	2001년	58.5	30.3	15.7	5.1	25.7
	2002년	61.6	31.5	17.6	5.1	27.0
	2003년	64.5	32.3	16.8	4.5	27.0
	2004년	63.5	30.7	16.6	4.1	25.7
	2005년	65.6	32.1	16.8	4.0	26.2
	2006년	70.1	35.0	16.8	4.9	27.5
	2007년	72.9	39.3	17.3	5.2	28.7
	2008년	73.7	40.5	19.1	5.8	29.8
	2009년	73.9	40.4	19.5	5.6	30.1
	2010년	71.9	40.8	19.0	5.8	30.4
	2011년	71.6	40.9	19.1	5.3	31.2
2012년	70.3	42.5	19.8	4.8	31.9	
2013년	72.5	44.7	21.0	5.1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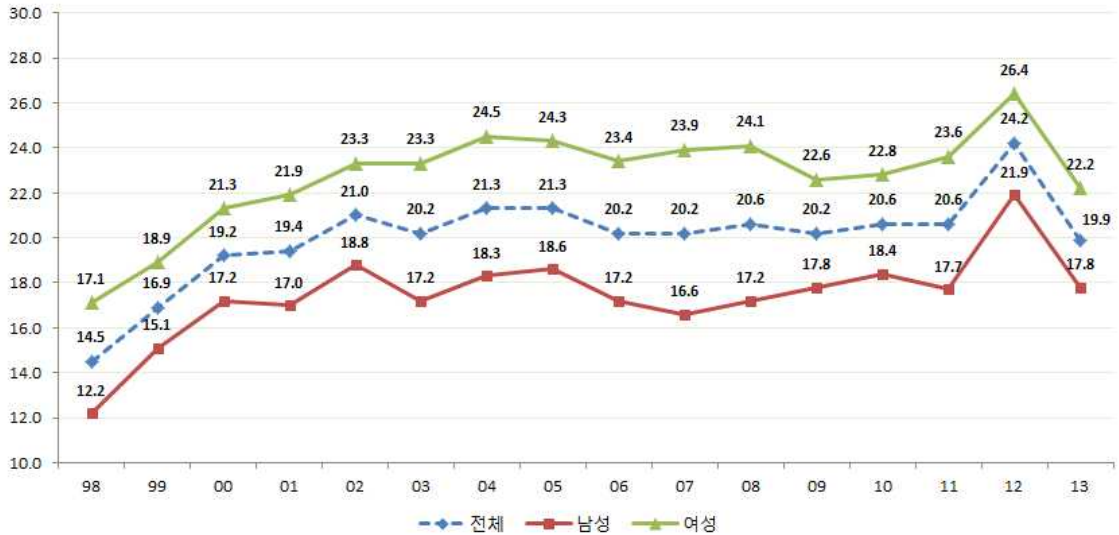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성별로 살펴보면 <부표 1>처럼 23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재학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8~20세 남성은 재학 비중이 1997년의 61.6%에서 2013년 67.4%로 높아진 반면, 여성은 동 기간 56.2%에서 76.7%로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한다.

비록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였더라도 관찰기간 동안 이들의 고용률이 상승하였다면 이들 청년의 비중 증가가 고용률 하락에 주는 영향은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학 중인 청년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2004년 이후 고용률이 안정적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1998년 14.5%이었던 재학생

의 고용률은 2004년 21.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큰 변화가 없는 데, 이는 남녀 모두에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재학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학생 고용률이 24.2%까지 치솟았는데, 이의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6] 재학 중인 18~29세 청년의 고용률 추이: 1997~201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휴학 중인 청년 비중의 변화

다음 단계로 <표 3>과 같이 휴학 중인 청년의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특징적 사실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분적인 상승과 하락의 진폭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휴학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7년 2.1%에 불과하였던 18~29세 청년 중 휴학생의 비중은 2013년 7.5% 수준까지 높아졌다.

둘째, 모든 연령층에서 휴학생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특히 21~23세와 24~26세에서 휴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져 휴학의 증가를 주도하였다. 셋째, 성별로 살펴보면 <부표 2>처럼 여성은 21~23세, 그리고 남성은 24~26세에서 휴학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21~23세 여성의 휴학 비중은 1997년의 0.9%에서 2013년에는 8.3%까지 높아졌고, 24~26세 남성의 휴학 비중도 같은 기간 1.8%에서 10.0%로 상승하였다. 4년제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하는 평균 연령이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남성 25.4세, 여성 23.4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졸업을 눈앞에 두고 휴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휴학하는 비중의 증가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재학생 비중의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휴학 증가

와 휴학 증가가 졸업을 앞 둔 연령대에서 현저하다는 사실은 취업난이 휴학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인다.

<표 3> 연령대별 휴학 중인 청년의 비중(%)

구 분		연령대				
		18~20세	21~23세	24~26세	27~29세	18~29세 전체
전체	1997년	3.2	4.9	1.0	0.3	2.1
	1998년	4.6	7.8	1.7	0.4	3.2
	1999년	6.0	10.5	3.0	0.7	4.5
	2000년	6.4	11.8	3.1	0.8	5.0
	2001년	7.2	12.7	3.8	0.7	5.6
	2002년	7.1	13.2	4.8	0.9	6.1
	2003년	8.7	13.5	4.3	1.0	6.5
	2004년	8.7	15.0	5.3	1.4	7.2
	2005년	9.4	15.5	5.7	1.7	7.6
	2006년	9.3	15.3	6.4	1.7	7.5
	2007년	7.6	14.9	6.0	2.4	7.1
	2008년	7.5	15.5	5.5	2.2	6.9
	2009년	7.0	17.9	7.0	2.1	7.7
	2010년	7.0	18.5	7.6	2.3	8.1
	2011년	7.5	18.3	7.4	2.1	8.2
	2012년	7.4	18.1	6.8	1.9	8.1
2013년	6.5	15.6	6.7	1.9	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휴학의 사유: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의 증가

휴학의 사유와 관련되어 매년 5월에 실시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2007년부터 졸업자를 대상으로 재학 중 휴학한 경험의 여부 및 그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휴학 이유에 대하여는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있는데 복수응답의 결과를 통합한 휴학 경험의 여부 및 이유의 분포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서 ‘휴학 경험’이 있는 졸업생의 비중은 2007년의 23.0%에서 2013년 30.5%로 높아졌다. 특히 ‘취업시험 준비’,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취업경험’ 등 취업과 연관된 이유로 인해 휴학을 한 사례가 2007년의 5.6%에서 2013년에는 10.9%로 높아져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는데, 남녀 모두 취업과 연관된 이유로 인해 휴학을 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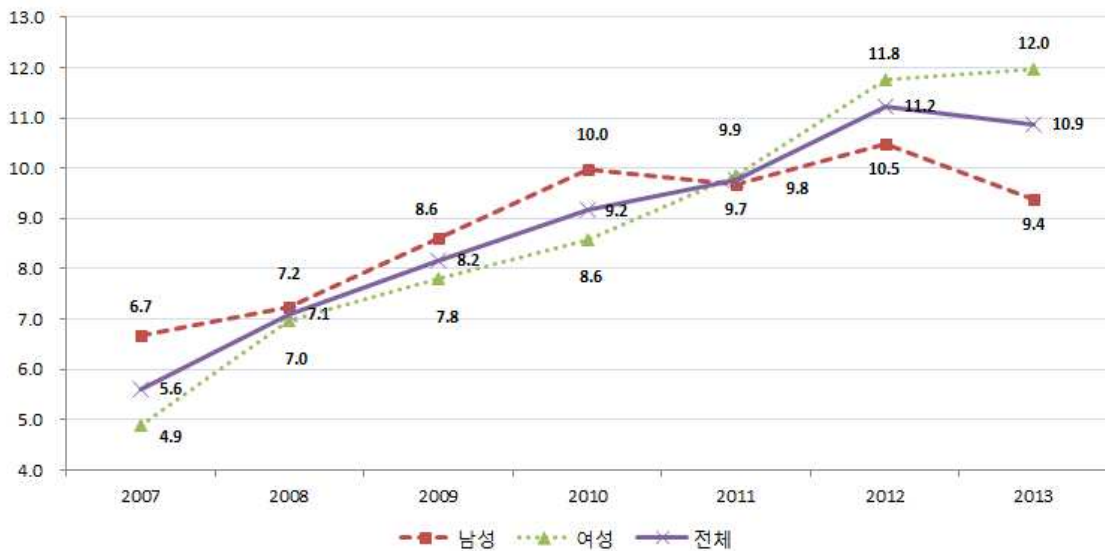
이 2007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백하지는 않지만 취업과 관련된 이유로 휴학한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난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표 4> 휴학경험 있는 18~29세 졸업생의 휴학 사유(%): 복수응답 가능

사유	2007. 5	2008. 5	2009. 5	2010. 5	2011. 5	2012. 5	2013. 5
경험 있음	23.0	25.3	26.8	27.0	29.8	29.9	30.5
취업시험 준비	2.1	2.9	3.9	3.1	3.2	3.9	4.2
자격시험 준비	1.3	1.4	1.7	2.1	2.1	2.7	2.9
어학연수	1.6	2.4	3.0	3.2	3.6	3.5	2.7
인턴 등 취업경험	0.7	0.5	0.5	0.8	1.0	1.2	1.1
가족적 이유	1.0	1.0	0.9	0.7	0.6	0.8	0.8
학비(생활비) 마련	2.9	3.2	3.3	3.5	3.7	3.3	3.7
병역의무 이행	17.0	17.7	18.7	18.2	20.1	20.4	20.8
기타	1.8	1.7	1.5	1.9	2.7	2.5	2.0
경험 없음	77.0	74.7	73.2	73.0	70.2	70.1	6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그림 7] 취업난으로 인해 휴학경험이 있는 18~29세 졸업생의 비중 추이



주: 취업준비, 자격시험준비, 어학연수, 인턴 등 취업경험으로 인해 휴학한 사례를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으로 간주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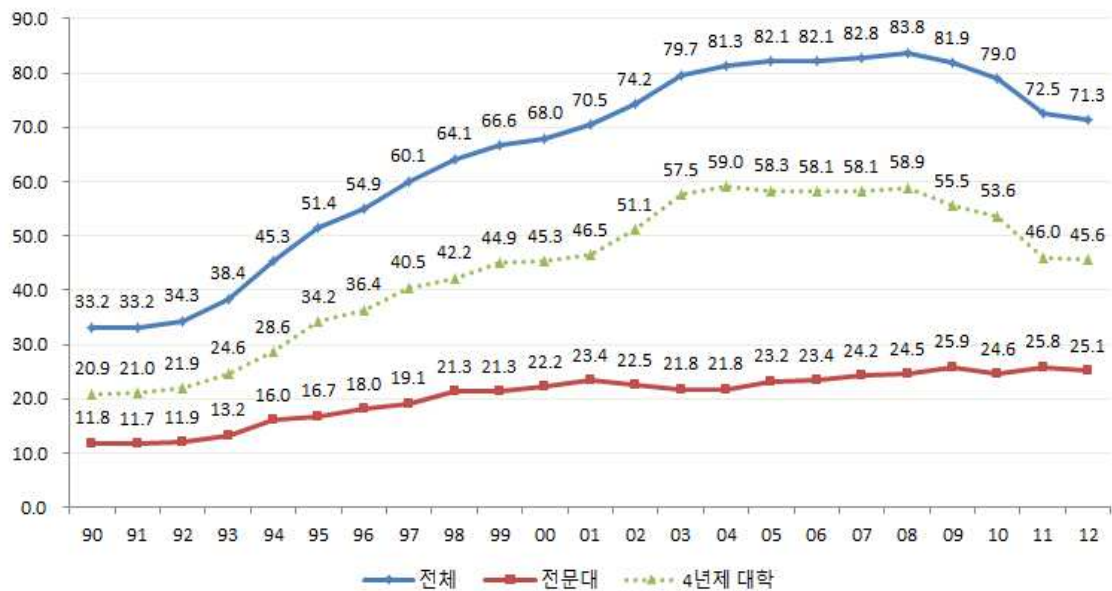
■ 청년의 고학력화

고학력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표 5>와 같이 졸업·중퇴한 청년은 고학력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학·휴학 중인 청년의 경우에는 어떤 추세를 발

견하기 어렵다. [그림 8]처럼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청년들 가운데서 고졸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⁶⁾

한편, 재학·휴학 중인 청년의 분포는 2005년 이후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며, 이는 고학력화 현상이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학·휴학 중인 18~29세 청년에서 고등학생이 점유하는 비중은 2005~2013년의 기간 동안 10.4%에서 11.4%로 높아졌으나 이는 같은 기간 18~20세 인구의 비중이 19.3%에서 22.4%로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전문대는 2005년의 22.1%에서 2013년 20.6%로 그 비중이 낮아졌고, 4년제 대학의 비중도 2007년의 65.2%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형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 또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중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고학력화의 결과라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림 8] 대학진학률의 추이: 1997~2013년



주: 2011년부터 대학진학률의 통계기준이 과거의 2월 졸업당시 대학합격자에서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변경되었다. 이에 2011년도 대학진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자료: 통계청(2013),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재인용

6) 이러한 현상은 졸업·중퇴자들 중 전문대 이상의 비중이 80% 내외에 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3~2011년 사이의 대학진학률은 평균 81.0% 수준이다. 이러한 대학진학률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들 중 전문대 이상의 비중도 80% 내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20~29세로 연령을 제한하여 졸업·중퇴한 청년들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표 5>처럼 중졸 이하 저학력자 및 고졸자의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대신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자의 비중은 1997년의 15.6%에서 2013년에는 35.7%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성별로도 <부표 3>과 같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고학력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즉,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은 남성이 1997년의 16.3%에서 2013년 34.3%로 높아진 반면, 여성은 14.9%에서 39.6%로 높아졌다. 현재 20대 여성의 40% 정도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급속한 고학력화는 여성의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5> 20~29세 졸업·중퇴한 청년의 학력별 분포의 추이: 1998~2013년

구 분		연령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전체	1997년	7.0	63.1	14.3	15.6	
	1998년	6.0	60.6	15.2	18.2	
	1999년	5.6	58.8	17.0	18.6	
	2000년	5.4	55.7	19.1	19.7	
	2001년	4.9	53.7	21.1	20.3	
	2002년	3.6	50.6	23.2	21.7	
	2003년	3.6	47.5	24.8	22.8	1.3
	2004년	3.8	43.9	27.0	24.1	1.3
	2005년	3.5	41.3	28.4	25.3	1.4
	2006년	3.2	38.2	29.3	27.8	1.4
	2007년	3.0	35.8	31.2	28.5	1.5
	2008년	3.2	33.8	31.2	30.5	1.3
	2009년	3.1	33.0	31.4	31.1	1.4
	2010년	2.8	31.1	31.1	32.6	1.4
	2011년	2.8	30.5	31.2	34.1	1.4
	2012년	2.7	29.1	32.5	34.2	1.4
	2013년	2.7	28.3	31.8	35.7	1.6

주: 2002년까지는 4년제 대졸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졸업 소요기간 및 졸업 연령의 장기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최종학교의 입학·편입시기 및 졸업·중퇴·휴학 시기를 질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입학 후 졸업까지의 소요기간과 졸업·중퇴 시

의 연령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까지의 소요기간과 졸업·중퇴 시의 연령이 어떤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관찰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을 지연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9]는 4년제 대학 졸업까지의 소요기간을 보여주고 있다.⁷⁾ 남녀 모두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7년 이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07년 58.8개월이 소요되었던 졸업까지의 기간은 2013년 60.5개월로 1.7개월이 늘어났는데, 특히 여성의 졸업소요기간이 남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한편 전문대의 졸업소요기간은 2007~2013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다. 2007년 33.6개월이었던 졸업소요기간은 2011년 33.7개월로 0.1개월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그림 9] 4년제 대학 졸업 소요기간(개월): 18~29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휴학을 포함한 졸업지연을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졸업·중퇴 시의 연령이다. 졸업·중퇴 시점의 평균 연령은 <표 6>에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졸업·중퇴 연령이 2005년 이후 늘어났다. 앞서 설명한 졸업까지의 소요시간과 마찬가지로 전문대의 경우에는 졸업·중퇴 연령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졸업·중퇴 연령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05년 24.02세이었던 졸업·중퇴 연령은 2013년 24.21세로 6년 동안 약 2.3개월이 늘어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졸업·중퇴 연령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연령이 남성보다 더욱 늦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7) 졸업까지의 소요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졸업·중퇴 시의 연령(세): 18~29세

구분		2005.5	2006.5	2007.5	2008.5	2009.5	2010.5	011.5	2012.5	2013.5
학력	성 별									
모든 학력	남 성	21.38	21.50	21.76	21.82	22.00	21.94	22.21	22.09	22.12
	여 성	20.50	20.73	20.90	20.94	21.02	21.16	21.10	21.21	21.28
	전 체	20.88	21.06	21.28	21.33	21.45	21.50	21.58	21.60	21.65
전문대	남 성	23.21	23.07	23.31	23.22	23.13	23.16	23.19	23.09	22.94
	여 성	21.18	21.15	21.28	21.25	21.31	21.16	21.16	21.22	21.15
	전 체	21.89	21.82	22.05	21.98	21.99	21.89	21.91	21.90	21.80
4년제 대학 이상	남 성	25.38	25.35	25.46	25.34	25.48	25.52	25.55	25.45	25.37
	여 성	23.05	23.03	23.22	23.26	23.32	23.41	23.35	23.40	23.40
	전 체	24.02	23.94	24.12	24.13	24.23	24.23	24.28	24.24	24.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이상의 분석결과는 명확하다. 취업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휴학을 하거나 또는 수업학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졸업을 지연하고 있으며, 이는 나이 어린 청년들의 고용률 감소로 나타난다. 그리고 재학 또는 휴학한 청년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증가속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빨라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간극이 줄어드는 현상은 졸업까지의 소요기간에 있어서도 관찰된다.

3. 성별·학력별 고용률의 변화 추이

고용률의 변화를 성별·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7>과 <부표 3>, 그리고 [그림 10]~[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고용률이 다른 학력층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 하락 추세도 더욱 뚜렷하다. 전문대졸 청년의 고용률은 2002년 이후 모든 년도에 걸쳐 4년제 대졸자의 고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의 취업난이 더욱 명확하다. [그림 11]에서 고졸 이하 18~29세 청년의 고용률은 2003년의 77.2%에서 2013년 63.3%로 낮아졌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의 고용률도 2003년 이후 낮아졌는데, 남성 청년의 취업난은 이들 두 계층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고용률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림 12]와 같이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하락하였지만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다소 높거나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취업난에 처하여 졸업을 늦추거나 휴학을 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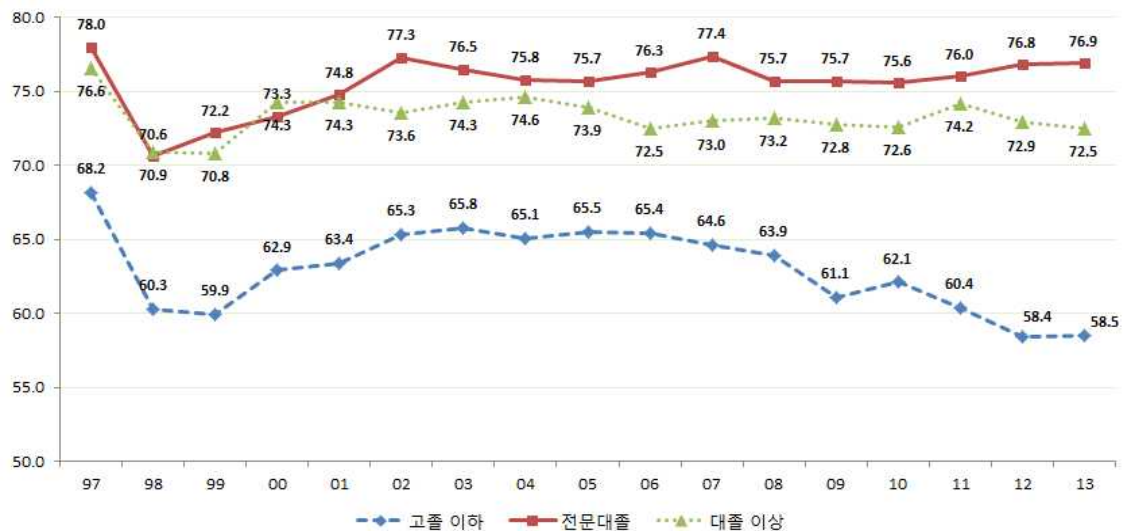
<표 7> 졸업·종퇴한 18~29세 청년의 학력별 고용률 추이

(단위: %)

구 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97년	68.2	82.1	57.1	78.0	86.2	72.5	76.6	84.6	69.8
1998년	60.3	72.9	49.4	70.6	78.8	65.3	70.9	78.8	64.5
1999년	59.9	73.4	48.8	72.2	80.0	67.4	70.8	75.8	66.9
2000년	62.9	75.8	52.2	73.3	79.4	69.7	74.3	80.1	69.7
2001년	63.4	75.1	53.6	74.8	80.0	71.9	74.3	79.0	70.6
2002년	65.3	76.6	55.7	77.3	83.9	73.4	73.6	76.8	71.3
2003년	65.8	77.2	56.1	76.5	82.2	73.3	74.3	79.8	70.3
2004년	65.1	74.4	57.1	75.8	81.8	72.3	74.6	78.8	71.7
2005년	65.5	73.9	58.1	75.7	78.5	74.2	73.9	79.3	70.2
2006년	65.4	74.1	57.0	76.3	81.0	73.9	72.5	75.8	70.4
2007년	64.6	72.7	56.6	77.4	81.3	75.0	73.0	74.9	71.7
2008년	63.9	72.1	55.5	75.7	78.3	74.3	73.2	75.8	71.4
2009년	61.1	70.4	52.0	75.7	79.5	73.5	72.8	73.8	72.1
2010년	62.1	69.2	54.5	75.6	80.9	72.5	72.6	75.4	70.8
2011년	60.4	67.8	52.8	76.0	80.4	73.4	74.2	75.0	73.6
2012년	58.4	63.1	53.1	76.8	81.3	74.2	72.9	75.5	71.0
2013년	58.5	63.3	52.7	76.9	81.1	74.4	72.5	75.0	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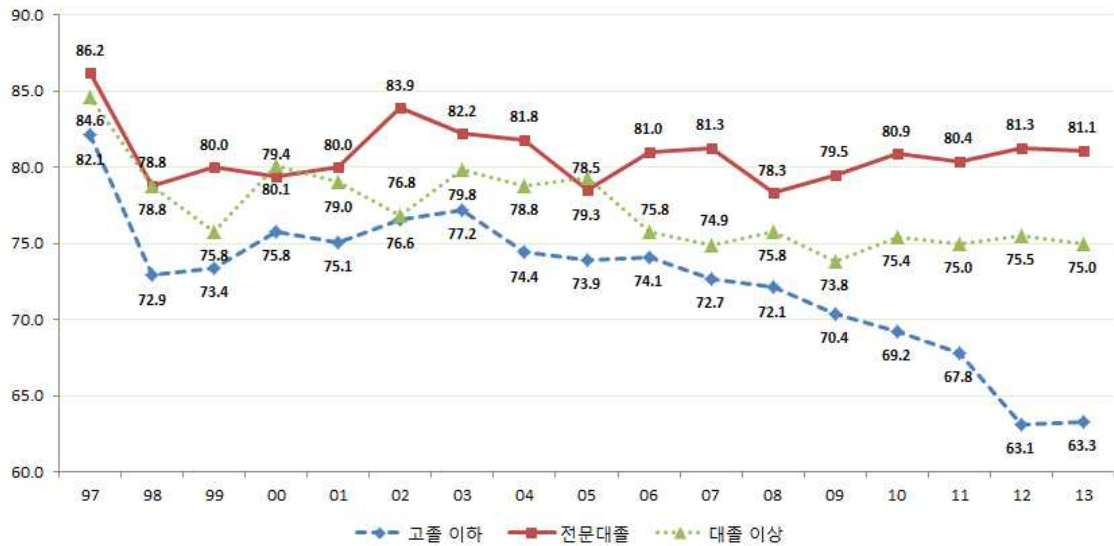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0] 18~29세 청년의 학력별 고용률 변화: 1997~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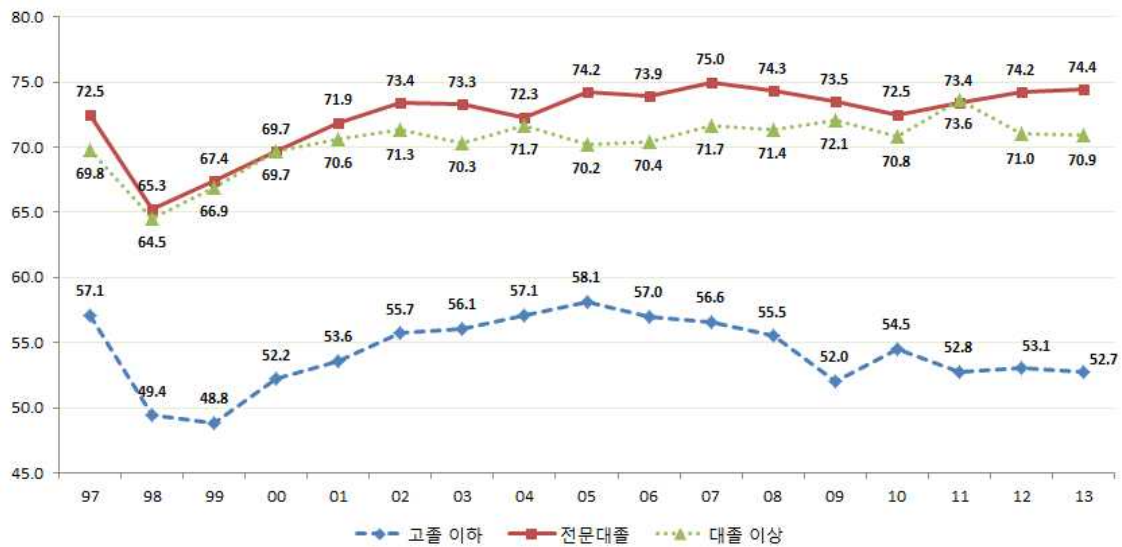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1] 18~29세 청년남성의 학력별 고용률 변화: 1997~201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2] 18~29세 청년여성의 학력별 고용률 변화: 1997~2013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4. NEET와 취업애로계층

2013년 18~29세 청년의 공식실업률은 8.0%이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이 보다 상당히 크다. 이는 공식적인 실업률이 청년들의 취업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식적 실업률이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청년들

이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난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축적된 인적자본의 불안전 활용으로 이어진다.

공식적 실업률을 보완하고 체감 실업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와 취업애로계층이다. NEET는 통상 '취업하지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층'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99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의무교육을 종료한 후 진학 또는 취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16~18세 청소년을 지칭한다.(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일본은 이 개념을 확장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15~34세 사이의 미혼 계층을 NEET로 분류하고 있다.(총무성, 2004 국세조사). 한국에서도 남재량, 전용일, 조준모, 최창균 등이 각기 NEET를 정의하고 그 규모를 측정한다.⁸⁾ 여기에서는 NEET를 남재량(2006)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게 ①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그리고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④ 배우자가 없는 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하였다.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취업애로계층이다. 취업애로계층은 공식적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이나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와 불안전취업자를 합한 수치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는 설문지에서 '지난 주 직장을 원하였고,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자'를 의미하며, 불안전취업자는 지난 주 및 평소 주당 36시간미만을 일하면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⁹⁾

8) 남재량(2006)은 NEET를 청년무업자로 해석하고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그리고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하였다. 전용일, 조준모(2007)은 종전의 NEET 정의가 "---이면 NEET에 속한다."라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가 아니면 모두 NEET이다."라는 방식의 정의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NEET를 15~29세 사이의 개인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정의하였다. NEET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는 ① 취업자, ② 취업준비나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닌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등의 통학자, ③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의 활동자 등이다. 최창균 외(2008)도 NEET를 유희청년층으로 해석하고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NEET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 1>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개인, <정의 2> 정의 1 +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으로 '가사'에 종사한 개인, <정의 3> 정의 2 + 비경제활동인구 중 '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및 '기타'인 개인이다.

9) 여기에서는 불안전 취업자를 지난 주 및 평소 주당 36시간미만 일하고 있으며, 지난 주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일을 더하거나 또는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바꾸기를 원하였던 사람으로 정의한다.

<표 8>에서 취업애로계층의 비중은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안 보이지만 NEET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경우 18~29세 청년 중 NEET의 비중은 15.0%까지 높아졌다.

<표 8> 18~29세 청년 중 NEET와 취업애로계층의 규모 및 비중의 추이

구분	인구(P)	취업자(E)	실업자		취업애로계층		NEET	
			규모	실업률	규모(D)	비중 D/(E+P)	규모(N)	비중 (N/P)
2000년	8,982	4,838	423	8.0	617	11.3		
2001년	8,851	4,784	407	7.8	562	10.5		
2002년	8,652	4,774	358	7.0	466	8.9		
2003년	8,369	4,582	397	8.0	519	10.2	972	11.6
2004년	8,174	4,550	408	8.2	552	10.8	1,021	12.5
2005년	7,978	4,425	383	8.0	515	10.4	1,059	13.3
2006년	7,785	4,243	362	7.9	485	10.3	1,052	13.5
2007년	7,703	4,168	325	7.2	454	9.8	1,000	13.0
2008년	7,640	4,064	313	7.1	466	10.3	998	13.1
2009년	7,564	3,935	344	8.0	534	11.9	1,070	14.1
2010년	7,487	3,889	338	8.0	529	12.0	1,093	14.6
2011년	7,427	3,856	317	7.6	491	11.3	1,073	14.4
2012년	7,368	3,815	310	7.5	470	11.0	1,086	14.7
2013년	7,452	3,769	328	8.0	481	11.3	1,118	15.0

주: 2000년부터 실업자 기준을 '지난 1주 구직활동'에서 '지난 4주 구직활동'으로 바꾸었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일할 수 있었는지의 가능성을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부터의 취업애로계층을 제시한다. NEET의 규모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2003년부터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앞에서 우리는 취업난이 악화됨에 따라 휴학을 선택하거나 수업학기의 연장을 통해 취업난을 비껴가려는 청년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NEET와 취업애로계층은 이러한 청년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수업학기의 연장을 통한 졸업연기의 대부분은 NEET와 취업애로계층에서 제외된다. 또한 휴학생의 경우도 NEET와 취업애로계층은 일부만을 포함한다. 휴학생 모두들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취업난의 악화로 인해 휴학의 비중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그림 1] 등 위에서 설명된 청년취업난의 악화 현상을 취업애로계층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의 의문이다. [그림 1]에서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18~29세의 고용률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표 8>을 살펴보면 NEET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애로계층의 비율이 별다른 변화를 찾기 어렵다. 이는 청년취업난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취업애로계층의 개념이 명확한 한

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5. 소결

청년취업난의 악화는 모든 청년들에게 같은 고통을 안기는 것이 아니다. 20대 초반까지의 어린 청년과 남성, 그리고 저학력자들이 취업난으로 인한 고통을 더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취업난에 대처하기 위해 휴학이나 수업학기 연장 등의 수단을 통한 졸업연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졸업·중퇴한 청년들 중에서도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경쟁의 심화에 따라 저학력 졸업생이 많은 어린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이 현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실업률이나 NEET, 취업애로계층과 같은 보조적 지표들은 청년취업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청년취업난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재학·휴학생과 졸업·중퇴한 청년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Ⅲ. 청년 일자리의 특징

1. 비정규직의 비중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여부를 자신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응답자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청에서 비정규직 여부를 판정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차별화된다. <표 9>에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증한 것을 나타나고 있다.

<표 9> 연령대별 비정규직의 비중

(단위: %)

구 분	KLIPS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18~ 29세	30~ 54세	55세 이상	전체	18~ 29세	30~ 54세	55세 이상
1998년	23.7	18.7	23.7	39.3				
1999년	35.6	33.8	34.0	55.7				
2000년								
2001년	25.3	21.2	24.2	44.7				
2002년	25.5	21.3	23.9	45.1				
2003년	24.9	19.9	23.1	45.1	32.5	31.5	29.3	55.6
2004년	31.2	29.6	28.1	51.5	36.9	34.7	34.4	58.9
2005년	34.4	34.1	30.9	53.7	36.6	34.8	33.8	58.3
2006년	34.8	34.3	31.4	54.5	35.5	32.7	32.5	59.9
2007년	34.5	32.6	30.8	56.2	35.8	32.9	32.6	59.3
2008년	33.9	31.8	29.7	57.7	33.8	32.7	29.9	57.3
2009년	37.8	33.9	32.2	66.4	34.8	33.7	29.8	61.9
2010년	40.0	35.0	33.7	68.7	33.3	33.3	27.9	58.9
2011년	40.8	35.6	33.9	70.4	34.1	33.8	28.9	58.1
2012년	41.5	34.0	34.7	72.8	33.3	33.4	27.5	57.0
2013년					32.6	33.8	26.0	56.5

주: 2000년에는 비정규직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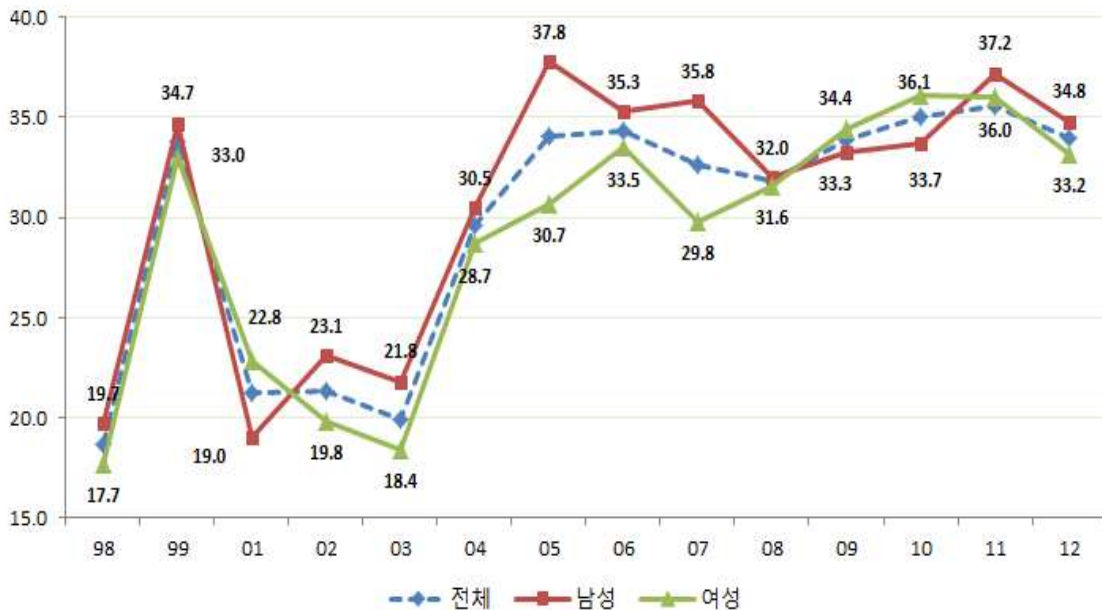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2004년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4년 31.2%이었던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41.5%까지 뛰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55세 이상의 취업자 중 자신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간

주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18~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이후 안정적 모습을 보이지만 5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2년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72.8%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을 18~29세로 한정하여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3]과 같이 남녀 간 비정규직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청년여성은 비정규직 비중이 200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남성은 그 비중이 2004년 이후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0년경부터 다시 늘어나는 형상을 보인다.

[그림 13]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 18~29세, KL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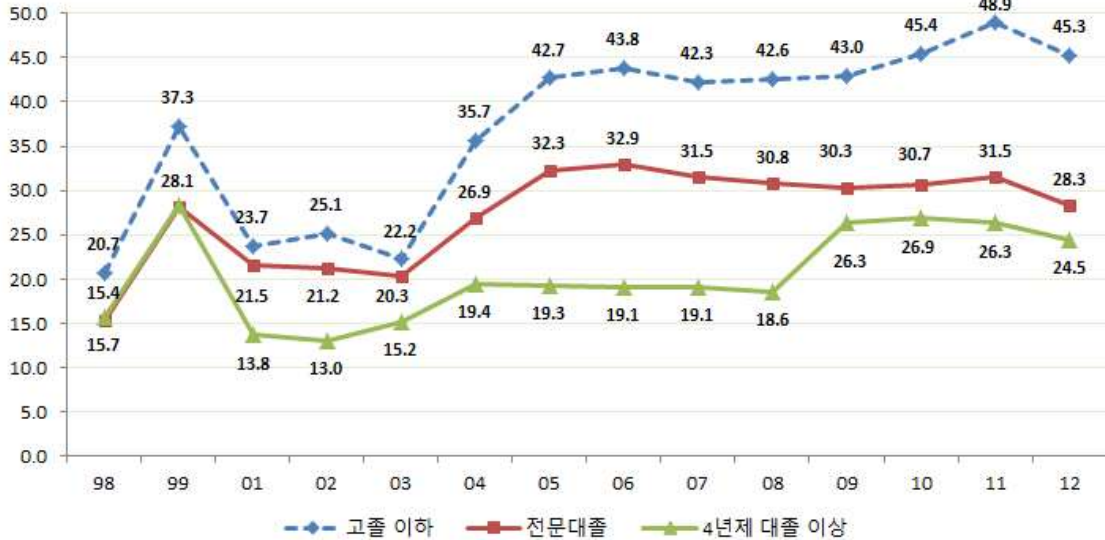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학력별 비정규직의 비중은 다소 다른 추세를 보인다. [그림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상식적이나, 고졸 이하 저학력자 청년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청년들 사이의 격차가 2003년 이후 계속 확대되었다. 이는 저학력 청년들이 취업전선에서 어쩔 수 없이 낮은 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비중이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14]에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2008년의 18.6%에서 2009년 26.3%로 뛰어 올랐다. 이에 따라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 고학력자 사이의 비정규직 비중의 격

차도 2009년 이후 급격하게 좁혀졌다.

[그림 14] 학력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 18~29세 KLIPS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2. 시간제 근로의 비중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U자형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이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다소 대비된다. 구체적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1998년 11.9%에 달하였고, 이는 2008년의 7.5%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년 10.7% 수준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1998년 수준에는 미달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의 청년은 시간제 비중이 관찰연도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거나 55세 이상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U자 형태를 띤다. 따라서 U자형 시간제 근로의 추이는 55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30~54세의 연령층에서는 시간제 근로 비중이 1998년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가 2009년 이후에야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그림 15]와 같이 2004년 이후 남녀 모두 시간제의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찰연도에 걸쳐 18~29세 여성의 시간제 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이후 남녀 간 시간제 비중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도 특징적 사실이다. 즉, 여성은 2008년 이후 시간제 비중이 늘어났으나 남성은 줄어들어 성별 격차가 확대되었다.

<표 10>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시간제 근로의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KLIPS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18~29세	30~54세	55세 이상	전체	18~29세	30~54세	55세 이상
1998년	11.9	10.6	12.0	15.7				
1999년	13.0	13.9	12.4	13.7				
2000년	11.3	11.7	10.8	13.4				
2001년	8.6	9.8	7.5	12.2				
2002년	10.4	11.9	9.6	10.9				
2003년	9.9	11.6	8.9	10.9	6.5	7.2	5.5	10.7
2004년	8.9	14.2	7.8	10.8	7.3	7.1	6.4	13.0
2005년	8.9	12.6	7.2	9.9	6.9	7.7	5.7	12.4
2006년	8.6	11.7	7.2	8.9	7.3	7.5	6.0	14.4
2007년	7.9	11.9	6.5	7.8	7.4	8.3	5.7	14.8
2008년	7.5	10.4	6.3	8.8	7.6	8.5	5.7	16.0
2009년	9.3	11.8	7.5	13.5	8.6	9.7	6.5	16.8
2010년	10.3	10.4	8.4	17.1	9.4	11.2	6.7	19.5
2011년	10.5	12.4	8.0	18.1	9.7	11.7	6.7	19.8
2012년	10.7	10.2	8.4	19.1	10.2	13.2	6.4	22.1
2013년					10.3	13.7	6.3	21.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5] 성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추이: 18~29세, KLIPS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3. 임금의 결정방식

임금과 관련된 하나의 주제는 임금의 결정방식이다. <표 11>은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의 시계열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8~2012년의 기간 동안 월급제가 7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일당제(9.3%)와 연봉계약제(7.3%)가 잇고 있다. 그리고 순수한 실적급제가 2.6%, 시간급이 2.7%, 도급 0.8% 등으로 조사되었다. 관찰기간에 걸쳐 월급제의 비중이 70%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8년 2.9%에 불과하였던 연봉계약제는 2012년 9.0%까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순수한 실적급제는 주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당제도 크지는 않지만 약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표 11> 임금결정방식의 추이

(단위: %)

구 분	임금결정방식							
	연봉 계약제	월급	주급	일당	시간급	도급	실적급	기타
1998년	2.9	78.4	0.3	9.9	2.1	2.1	4.0	0.3
1999년	2.4	75.2	0.5	13.3	2.7	1.6	3.8	0.4
2000년	2.8	77.7	0.2	11.1	2.7	1.1	4.0	0.3
2001년	3.8	77.8	0.4	10.2	2.4	1.3	3.9	0.4
2002년	4.6	78.5	0.3	8.6	2.2	1.3	4.0	0.6
2003년	6.6	76.7	0.1	9.5	2.4	0.8	3.5	0.4
2004년	8.4	74.8	0.3	9.6	2.9	0.7	3.2	0.3
2005년	8.5	75.3	0.2	10.2	3.2	0.7	1.8	0.2
2006년	8.5	76.2	0.1	9.6	3.2	0.4	1.8	0.3
2007년	8.6	76.3	0.1	9.9	3.3	0.4	1.2	0.2
2008년	10.5	76.8	0.2	8.3	2.1	0.3	1.7	0.3
2009년	9.3	77.8	0.2	8.1	2.4	0.6	1.5	0.2
2010년	8.4	78.8	0.1	8.0	2.4	0.5	1.7	0.2
2011년	10.7	76.1	0.2	7.7	2.8	0.3	2.1	0.3
2012년	9.0	76.9	0.1	8.1	2.8	0.4	2.5	0.3
전체	7.3	76.9	0.2	9.3	2.7	0.8	2.6	0.3

주: 2000년에는 비정규직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임금결정방식의 변화추이를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18~29세 청년들의 임금결정방식은 월급제가 가장 많다. 월급제 비중은 30~54세 또는 55세 이상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봉제가 2012년 9.0%, 시

간급제가 5.6%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에서는 일당제의 비중이 높아 전 기간에 걸쳐 22.7%를 기록하였고, 30~54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높아 전 기간에 걸쳐 8.4%를 보였다. 이처럼 연령대에 따라 임금결정 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18~29세의 경우 월급제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 사실로 여겨진다.

<표 12> 연령대별 임금결정방식의 추이

(단위: %)

구 분	18~29세			30~54세			55세 이상		
	연봉 계약제	월급	시간급	연봉 계약제	월급	시간급	연봉 계약제	월급	일당제
1998년	3.5	84.4	2.5	2.9	77.1	2.0	1.4	69.0	23.1
1999년	2.7	83.7	4.6	2.6	74.6	2.1	0.8	55.1	38.3
2000년	3.3	86.1	4.1	2.7	76.8	2.3	1.6	58.5	32.6
2001년	4.3	84.9	3.8	3.9	76.5	1.9	1.2	64.3	26.7
2002년	4.1	86.4	3.5	5.4	76.7	1.8	1.3	67.9	22.5
2003년	6.9	82.8	4.2	7.3	75.5	1.6	2.1	68.3	22.1
2004년	7.5	81.5	5.8	9.8	73.4	1.9	3.1	66.9	23.2
2005년	8.2	81.0	6.5	9.6	74.4	2.2	3.0	68.5	24.5
2006년	8.7	80.6	6.8	9.6	75.3	2.1	1.9	72.1	21.9
2007년	9.4	78.2	7.6	9.5	76.7	2.1	2.5	71.3	22.4
2008년	10.4	81.4	4.6	12.1	75.9	1.5	2.8	74.5	19.8
2009년	8.7	83.6	4.8	11.2	77.2	1.9	2.2	73.2	20.3
2010년	8.3	84.5	4.6	9.9	78.9	1.9	2.5	73.3	20.0
2011년	9.8	80.9	5.8	12.7	76.1	2.3	3.9	71.8	19.3
2012년	9.0	82.8	5.6	10.6	76.9	2.3	3.0	72.2	20.0
전체	6.8	82.9	5.0	8.4	76.2	2.0	2.4	69.6	22.7

주: 2000년에는 비정규직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4. 임금 수준의 변화

임금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세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정확한 임금수준의 비교를 위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월평균 임금도 월평균 임금이 생계유지의 기본적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13>은 연령대별 월평균 명목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인다.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18~29세 청년의 임금은 1998년의 86.5만원에서 2012년 168.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특징적 사실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18~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이 대

부분의 관찰기간 동안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높다는 점이다.

청년층 임금의 상대적 변화를 보기 위해 <표 13>에서는 전체 평균임금에 대비하여 청년층의 임금이 얼마인지, 그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청년의 임금은 전체 평균임금의 80% 전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80% 전후의 이러한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침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 이러한 점은 30~54세 연령층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55세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시간에 따라 하락하여 1998년 전체 평균임금의 84.7% 수준에서 2012년에는 68.8%로 낮아졌다. 이는 55세 이상 연령층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의 변화: 명목임금

(단위: %)

구 분	월평균임금(세금 전)				전체 평균 임금대비 비율 (연령대 평균임금/전체 평균임금)			
	전체	18~ 29세	30~ 54세	55세 이상	전체	18~ 29세	30~ 54세	55세 이상
1998년	109.2	86.5	121.5	92.5	100.0	79.2	111.2	84.7
1999년	95.8	76.8	108.4	76.8	100.0	80.1	113.2	80.2
2000년	100.8	81.5	114.0	79.2	100.0	80.8	113.2	78.6
2001년	112.2	88.9	127.4	87.8	100.0	79.2	113.6	78.3
2002년	122.3	96.5	139.2	92.9	100.0	78.9	113.8	75.9
2003년	135.1	108.1	152.9	104.0	100.0	80.5	113.2	77.0
2004년	146.1	112.5	166.7	112.8	100.0	77.0	114.1	77.2
2005년	154.4	118.5	175.0	119.6	100.0	76.8	113.4	77.5
2006년	164.4	123.4	186.6	130.2	100.0	75.0	113.5	79.2
2007년	176.5	131.1	198.0	147.7	100.0	74.3	112.2	83.7
2008년	184.7	142.8	205.6	147.2	100.0	77.3	111.3	79.7
2009년	183.2	141.8	206.8	133.8	100.0	77.4	112.9	73.0
2010년	187.0	147.6	210.8	134.6	100.0	78.9	112.7	72.0
2011년	198.0	154.3	222.3	144.9	100.0	77.9	112.2	73.2
2012년	206.3	168.2	232.7	142.0	100.0	81.6	112.8	68.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표 14>와 같이 여성의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월평균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1998년의 59.5%에서 큰 변화가 없이 2012년도에도 5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18~29세 여성의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2007년까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부터 다시 악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일자리의 질 자체는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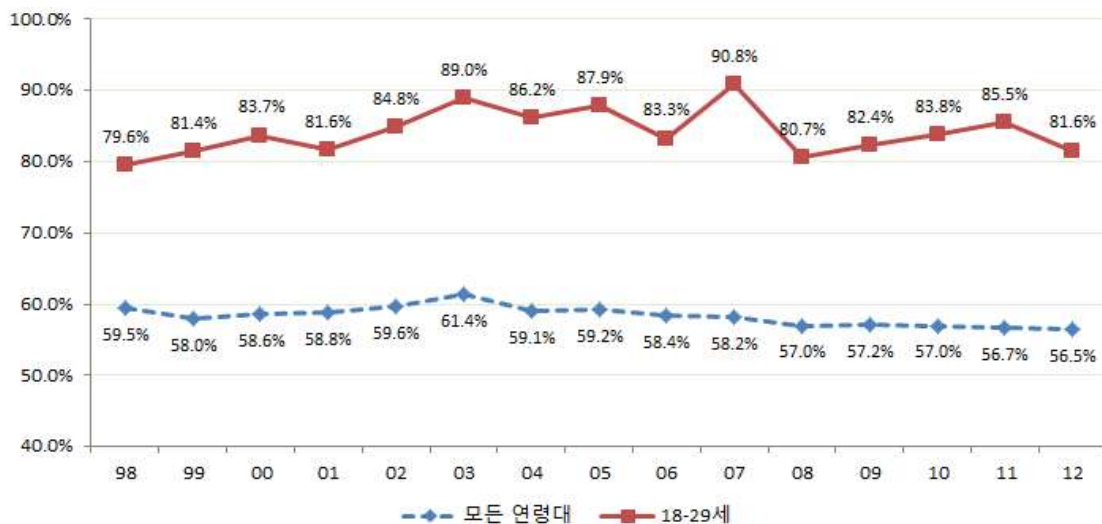
<표 14> 성별 임금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모든 연령대			18~29세		
	남성	여성	성비 (여성/남성)	남성	여성	성비
1998년	128.5	76.5	59.5	96.8	77.0	79.6
1999년	116.2	67.5	58.0	85.2	69.4	81.4
2000년	122.0	71.5	58.6	89.3	74.7	83.7
2001년	135.7	79.8	58.8	99.2	80.9	81.6
2002년	147.4	87.8	59.6	105.2	89.2	84.8
2003년	161.5	99.1	61.4	115.7	103.0	89.0
2004년	175.8	103.9	59.1	121.3	104.6	86.2
2005년	185.0	109.6	59.2	126.6	111.3	87.9
2006년	198.4	115.9	58.4	135.7	113.0	83.3
2007년	212.6	123.8	58.2	137.9	125.3	90.8
2008년	224.3	127.8	57.0	159.3	128.5	80.7
2009년	222.2	127.0	57.2	156.8	129.2	82.4
2010년	228.2	130.1	57.0	162.0	135.7	83.8
2011년	242.5	137.6	56.7	167.0	142.8	85.5
2012년	253.6	143.4	56.5	186.4	152.0	81.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그림 16] 성별 임금 격차의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학력별로는 <표 15>처럼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명목 임금상승폭이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 비해 낮다. 1998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의 임금은 82.0만원에서 141.9만원으로 73.0%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동안 전문대졸 청년은 101.2%, 그리고 4년제 대졸 이상도 101.1%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학력별 상대임금을 살펴보면 <표 15>와 [그림 17]과 같이 18~29세 청년을 기준으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월평균임금은 1998년의 81.5%에서 2012년 70.1%로 하락하였다.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수준도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2005년까지 낮아지다가 이후 반등하였지만 2012년에도 84.4%로 1998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취업난으로 인해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졌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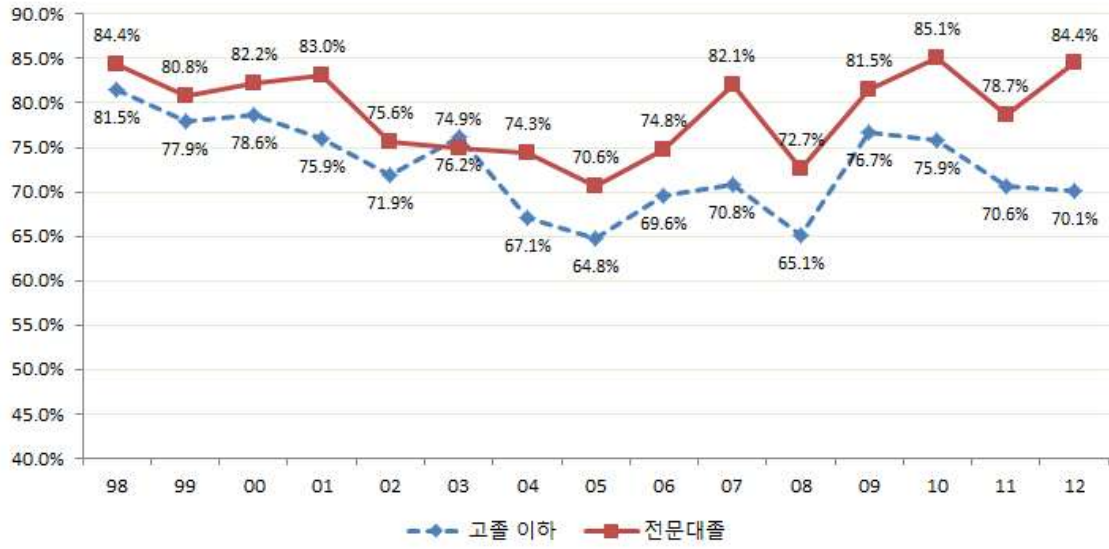
<표 15> 학력별 임금의 변화 추이: 18~29세 청년

(단위: %)

구 분	학력수준			임금의 상대비(해당 학력임금/4년제 대졸 이상의 평균임금)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 대졸 이상
1998년	82.0	84.9	100.6	81.5	84.4	100.0
1999년	72.5	75.2	93.1	77.9	80.8	100.0
2000년	76.7	80.2	97.6	78.6	82.2	100.0
2001년	81.7	89.4	107.7	75.9	83.0	100.0
2002년	87.6	92.1	121.8	71.9	75.6	100.0
2003년	102.0	100.2	133.9	76.2	74.9	100.0
2004년	98.7	109.2	147.0	67.1	74.3	100.0
2005년	102.7	111.9	158.5	64.8	70.6	100.0
2006년	109.2	117.4	156.9	69.6	74.8	100.0
2007년	112.9	130.9	159.5	70.8	82.1	100.0
2008년	120.1	134.1	184.5	65.1	72.7	100.0
2009년	127.8	135.8	166.7	76.7	81.5	100.0
2010년	130.1	145.9	171.5	75.9	85.1	100.0
2011년	133.2	148.4	188.6	70.6	78.7	100.0
2012년	141.9	170.8	202.3	70.1	84.4	1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그림 17] 학력별 임금격차의 변화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IV. 청년의 취업경험과 이직

청년취업난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의문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 모두가 직장경험이 없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가의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¹⁰⁾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이직 경험이 있는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청년 미취업자 중 직장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다. 실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중퇴한 뒤 직장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왜 직장을 이직하는가?’의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의 재취업을 분석한다. 만약 재취업을 통해 청년들이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 개인적 측면에서 이직은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 → 이직 → 구직 → 재취업’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높여가는 것이다. 분석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한계로 인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원시자료를 사용한다.

청년들이 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고 이것이 청년 미취업률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라면,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발달한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직은 재직 중 쌓아온 인적자본의 손실을 초래하며 미취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일궁합(job matching)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강조된다. 일궁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불필요한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취업난의 완화로 이어진다.

1. 취업경험

통계청은 매년 5월 35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가조사에서 통계청은 졸업 또는 중퇴자를 대상으로 ‘졸업 또는 중퇴 이후에 지난 주 일자리(직장)를 포함하여 모두 몇 번 취업하였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표 16>은 남녀 성별로 취업횟수의 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최근인 2013년 5월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청년 중 취업경험이 없는 개인은 전체적으로 12.4%에 불과하다. 현재의 일자리를 포함하여 취업경험이 한 번 있는 개인이 38.2%,

10)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영속적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학생의 아르바이트까지 취업으로 간주하여 이직의 결정요인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청년취업난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청년의 이직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졸업·중퇴한 청년으로 제한한다.

두 번이 23.0%, 세 번 14.0%, 그리고 네 번 이상이 12.5%로 10명 중 5명 이상은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취업경험을 지니고 있어 청년들의 직장이동이 상당히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기간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경험이 있는 비중이 높다.

<표 16> 취업횟수의 구성비: 학교를 졸업/중퇴한 18~29세 개인

(단위: %)

구 분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13. 5
전체	없음	8.1	8.8	8.3	8.9	8.9	9.9	10.9	11.1	12.4
	한 번	35.4	38.5	36.5	36.5	35.3	33.7	36.5	36.1	38.2
	두 번	23.0	22.6	23.3	22.6	22.3	23.2	23.3	22.8	23.0
	세 번	17.4	15.9	17.7	17.5	18.5	17.7	15.2	15.9	14.0
	네 번 이상	16.1	14.3	14.2	14.5	15.1	15.5	14.2	14.1	12.5
남성	없음	9.4	10.0	10.2	10.7	10.1	12.1	12.9	13.1	13.8
	한 번	35.5	37.5	36.7	36.5	36.6	33.6	38.1	35.8	38.0
	두 번	22.0	22.0	20.6	20.6	20.6	22.5	22.0	21.8	21.4
	세 번	15.7	14.9	17.1	16.6	17.3	15.3	12.4	14.8	13.5
	네 번 이상	17.4	15.6	15.4	15.6	15.4	16.6	14.6	14.5	13.2
여성	없음	7.2	7.9	6.8	7.6	8.0	8.3	9.3	9.6	11.3
	한 번	35.4	39.1	36.2	36.4	34.3	33.7	35.2	36.4	38.3
	두 번	23.7	23.1	25.4	24.1	23.6	23.8	24.3	23.5	24.2
	세 번	18.6	16.6	18.2	18.3	19.3	19.5	17.4	16.7	14.3
	네 번 이상	15.2	13.2	13.4	13.6	14.8	14.7	13.8	13.9	11.9

주: 지난 주 일자리를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2. 직장 이직경험자의 비중

졸업 또는 중퇴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이직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7>과 같이 2012년 5월의 경우 직장을 이직한 경험이 없는 18~29세의 청년은 45.0%이며, 한 번의 이직경험이 22.5%, 두 번이 17.2%, 그리고 세 번 이상도 15.3%에 달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5월 이후의 모든 시점에 걸쳐 이직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2013년 5월의 경우 남성은 46.6%가 이직경험 없지만, 여성은 그 비중이 43.8%로 남성에 비해 낮다. 그리고 이직경험이 없는 개인에는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취업경험이 없는 개인도 포함 되어 있다. 만약 분석에서 이들을 제외한다면, 이직경험이 있는 개인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표 17> 이직경험자의 비중: 학교를 졸업/중퇴한 18~29세 개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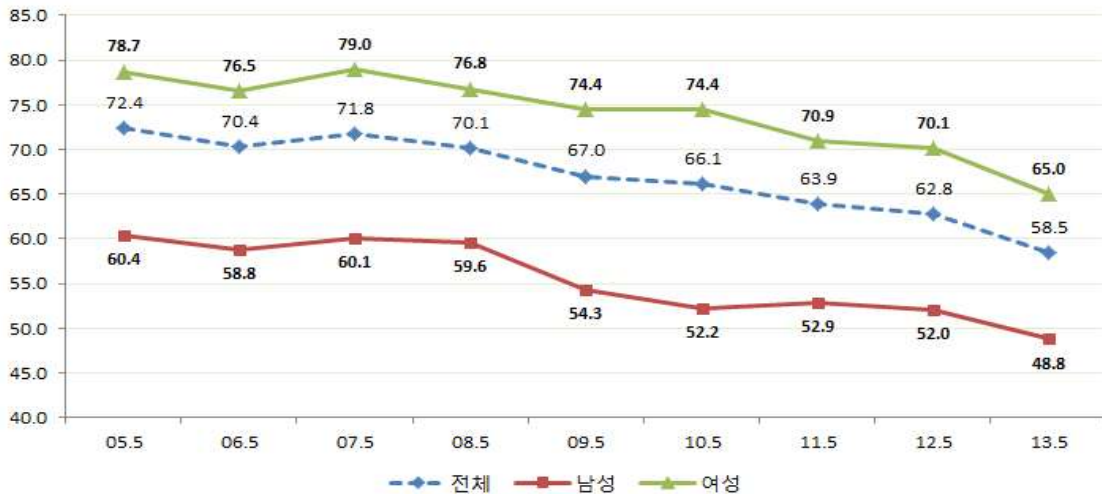
구 분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13. 5
전체	없음	36.4	40.1	37.5	38.4	39.2	38.0	40.7	40.8	45.0
	한 번	24.6	24.0	25.0	23.6	22.5	23.1	24.1	23.5	22.5
	두 번	18.6	17.9	19.2	19.6	19.0	19.7	17.0	18.2	17.2
	세 번 이상	20.4	18.1	18.4	18.4	19.4	19.2	18.2	17.5	15.3
남성	없음	39.8	42.5	41.5	41.4	42.7	41.7	45.1	44.2	46.6
	한 번	23.3	23.4	22.4	22.4	20.9	22.8	23.6	22.1	22.1
	두 번	17.4	16.2	17.7	18.5	17.7	16.5	14.4	16.9	17.0
	세 번 이상	19.6	17.9	18.5	17.8	17.7	18.9	16.9	16.8	14.3
여성	없음	33.9	38.4	34.4	36.1	35.6	35.1	37.3	38.2	43.8
	한 번	25.6	24.4	26.9	24.6	23.7	23.3	23.5	24.6	22.9
	두 번	19.5	19.0	20.4	20.4	20.0	22.2	18.9	19.2	17.3
	세 번 이상	21.1	18.2	18.3	18.9	20.7	19.5	19.2	18.0	16.1

주: 지난 주 일자리를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이처럼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34세 청년의 절반 이상은 졸업 또는 중퇴 이후에 취업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으로 미취업자 중 이직경험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미취업자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졸업 또는 중퇴 이후 한 번도 취업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취업 경험이 있지만 직장을 이직하고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이다. [그림 18]은 전체 미취업자 중 이직경험자의 비중을 성별로 나타낸다.

[그림 18] 미취업자 중 이직경험자의 비중: 학교를 졸업/중퇴한 18~29세 개인



주: 지난 주 일자리를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그림 18]에서 2013년 5월 미취업자의 58.5%는 졸업 또는 중퇴 이후 직장경험이 있으며, 단지 41.5%가 직장경험이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미취업자의 51.2%가 직장경험이 없었지만 미취업 여성은 그 비중이 35.0%로 남성에 비해 크게 낮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직경험자의 비중도 높다.

그렇지만 [그림 18]의 해석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은 노동시장의 이행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출 연령이 늦다. 따라서 이직경험을 가진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일견 당연하다. 또한 남성은 30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취업을 하는 반면, 여성은 30세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남녀 간 노동시장 이행행태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편의를 조정하는 방법의 하나는 NEET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남재량(2006) NEET 정의를 바탕으로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8~29세 청년 NEET 중 이직경험자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는 <표 18>에 정리되어 있다. 2013년 5월 기준 청년 NEET 중 이직 무경험자의 비중은 45.9%로 NEET의 절반 이상이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로는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이직경험자의 비중이 높다.

<표 18> NEET 중 이직경험자의 비율: 학교를 졸업/중퇴한 18~29세 개인

(단위: %)

구 분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13. 5
전 체	없음	33.5	34.8	34.2	36.3	39.3	40.6	40.8	41.0	45.9
	한 번	23.6	23.7	25.0	24.0	19.4	18.9	22.6	21.5	17.5
	두 번	17.3	17.7	16.6	17.3	15.3	17.2	15.6	17.8	19.4
	세 번 이상	25.6	23.7	24.2	22.4	26.1	23.3	21.1	19.6	17.2
남 성	없음	34.3	36.4	36.9	37.9	43.2	46.4	42.9	44.9	48.4
	한 번	22.1	21.0	22.1	23.4	16.9	14.9	23.0	18.3	20.1
	두 번	18.7	16.4	14.1	16.9	15.0	14.5	14.5	17.5	17.2
	세 번 이상	24.9	26.1	26.9	21.8	24.9	24.1	19.6	19.5	14.3
여 성	없음	32.5	33.1	30.6	34.2	34.8	33.9	38.2	36.6	43.1
	한 번	15.3	26.7	28.6	24.9	22.2	23.6	22.0	25.1	14.5
	두 번	15.8	19.2	19.9	17.9	15.6	20.3	17.0	18.4	21.9
	세 번 이상	26.4	21.1	20.8	23.1	27.4	22.3	22.9	19.9	20.5

주: 지난 주 일자리를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3. 이직의 원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15~34세 개인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직장)를 그만 둔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표 19>와 같이 전체적으로 근로여건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그 다음 순서로 '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 등 개인 및 가족적 이유'가 중요한 이직사유이다.

종합적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직사유의 비중은 2013년 5월의 경우 14.8%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우려, 전공 부적합 등이 이직의 핵심적 사유로 청년취업난 해소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가 일궁합(job matching)의 효율성 제고임을 시사한다.

<표 19>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주된 사유: 학교를 졸업/중퇴한 18~29세 개인

(단위: %)

구 분		05.5	07.5	09.5	11.5	13.5
자 발 적	1.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으로	41.5	42.2	43.1	42.3	45.1
	2.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7.5	7.9	6.6	7.3	7.6
	3.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8.8	9.3	9.7	9.9	8.2
	4.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상사, 동료와의 불화)	3.3	2.8	3.4	2.7	2.2
	5. 개인 또는 가족적인 이유로	21.2	20.5	17.5	18.3	18.7
	6. 창업 또는 가족 사업에 참여하려고	1.6	1.3	1.6	1.5	1.1
소계		83.9	84.0	81.8	82.0	82.9
비 자 발 적	7. 일이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일이 완료되어서	3.7	3.8	3.9	3.4	4.3
	8.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3.8	2.9	3.3	2.7	2.6
	9. 계약기간이 끝나서	1.7	2.1	3.4	5.5	4.9
	10.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1.3	1.0	1.5	0.8	0.9
	11. 직장의 휴업,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3.7	3.8	3.6	2.5	2.2
소계		14.1	13.7	15.7	14.8	14.8
기타		2.0	2.3	2.5	3.2	2.3

주: 지난 주 일자리를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4. 첫 직장의 근속기간

나아가 청년층 부가조사는 이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직장)의 근속기간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근속기간은 퇴직한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으로 <표 20>에 성별, 학력별, 연도별 평균근속기간의 분포가 정리되어 있다.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첫 일자리의 평균근속기간은 14.5개월로 1년을 약간 넘는 정도이며, 남성이 13.1개월 여성 15.5개월로 여성의 평균근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학력에 따라서 남성은 특징적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여성은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일 경우 평균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고졸 이하 또는 전문대졸 여성이 상대

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가 고학력 여성이 비교적 일찍 첫 일자리를 그만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표 20> 첫 일자리의 근속기간: 학교를 졸업/중퇴한 18~29세 개인

(단위: 개월)

구 분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13. 5
전체	고졸 이하	18.1	18.4	17.7	17.0	16.7	15.5	14.9	14.8	14.7
	전문대 졸	15.1	16.7	16.2	16.2	16.3	16.1	16.6	15.6	14.9
	대졸 이상	13.7	15.0	14.2	14.0	14.7	12.7	13.4	13.2	13.7
	소계	16.5	17.3	16.6	16.1	16.1	15.1	15.0	14.7	14.5
남성	고졸 이하	14.2	15.8	15.4	14.9	15.5	14.5	13.3	12.8	13.6
	전문대 졸	13.2	14.8	12.7	12.7	12.7	13.4	13.4	13.3	12.6
	대졸 이상	13.0	15.0	13.6	11.7	12.4	9.4	11.4	12.3	12.4
	소계	13.8	15.5	14.5	13.8	14.2	13.4	12.9	12.8	13.1
여성	고졸 이하	21.3	20.9	20.1	19.2	17.9	16.6	16.4	17.0	15.9
	전문대 졸	16.0	17.6	17.9	18.0	18.1	17.5	18.3	16.8	16.1
	대졸 이상	14.0	15.1	14.5	15.2	15.8	14.0	14.4	13.8	14.4
	소계	18.3	18.6	18.1	17.8	17.5	16.2	16.5	16.0	15.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시계열적으로는 <표 20>과 같이 2007년 5월 이후 남녀 모두 평균근속기간이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단 취업하였다가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그만 두거나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34세 청년의 대부분은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고용안정성이 낮아 쉽게 이직을 하며, 특히 미취업자 및 청년 NEET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개인이 아니라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 또는 NEET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궁합(job matching)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일궁합(job matching)의 비효율성이 청년취업난의 중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5. 청년 이직의 결정요인

■ 자료의 기초분석: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34세 개인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9~2009년 사이 전 직장을 그만둔 16,865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남성이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 8,754사례(51.9%),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 8,111사례(48.1%)가 관측되었다.¹¹⁾ 매년 1회씩 조사를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때는 직장에서의 이직여부를 판단할 수

의 특성 상 기존 일자리에서의 이직여부는 매년 단위로 사후적인 파악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번 조사시점과 현 조사 시점 사이에 직장을 그만 둔 사건이 있으면 ‘이직’으로, 그리고 현 조사 시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지속’으로 간주된다. 직장의 이직 여부, 즉 고용안정과 관련된 지표로 직장유지율¹²⁾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직장유지율 대신 ‘이직위험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직위험도는 지난 번 조사와 현 조사 시점 사이에 어떤 특정 개인이 이직할 위험(확률)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전체 일자리 표본 중 얼마나 이직하였는가의 비율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을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34세 청년 임금 근로자로 제한한다.¹³⁾ 자영업은 제외하는 것은 자영업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의 동일선상에서 자영업 소득을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⁴⁾ 이 때 1999~2009년 사이 전 직장을 이직한 사례는 모두 6,3178사례로 여성이 3,158 사례, 남성 3,159사례이다. 먼저 분석대상자의 특성별 이직위험도를 계산하면 <표 21> 및 <표 22>와 같다. 우선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의 이직위험도는 관찰기간동안 24.3%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27.0%로 남성의 22.0%에 비해 이직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는 여성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일반적 사실을 다시 한 번 반영하고 있으며, 1년 사이에 여성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이 이직을 한다는 것이다.

5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였을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직위험도가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20~24세는 이직위험도가 30.3%이지만 30~34세에는 21.1%로 크게 낮아진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분석을 하면 40대까지는 이직위험도가 계속 감소하다가 50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연령에 따라 이직위험도가 급격히 하락하지만 여성은 감소폭의 변화가 크지 않다.

교육수준별로는 남녀 모두 어떤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이직위험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은 별 다른 특징이 없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그가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 이직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을 책임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직성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여성은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남성은 기혼자의 경우 이직위험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없었다. 따라서 이직여부와 관련된 분석에는 1999년 이후의 데이터로 한정된다.

- 12) 직장유지율은 일자리에 취업한 지 1년, 2년, 5년이 지난 후에도 얼마나 그 일자리에 계속 근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우 정확한 개념이다.
- 13)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졸업여부에 대해, 졸업, 수료, 중퇴, 재학, 휴학의 다섯 가지로 질문하고 있다. 수료도 학업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킨다.
- 14) 자영업 종사자는 많은 경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적자 여부’만을 조사하지 적자 규모를 파악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적자를 어떻게 간주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자영업의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자본소득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의 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표 2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직위험도: 학교를 졸업/중퇴한 15~34세 청년 임금근로자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연령	15~19세	32.5	39.1	27.7
	20~24세	30.3	33.3	29.0
	25~29세	24.5	23.2	26.0
	30~34세	21.1	18.5	26.4
학력	고졸 이하	28.8	26.7	31.6
	전문대졸	22.9	20.4	25.1
	대졸 이상	18.1	15.2	21.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20.9	18.8	31.0
	배우자	27.0	12.9	28.6
	자녀	25.9	26.2	25.6
	기타 친인척	22.0	23.2	21.0
혼인 상태	미혼	25.7	25.7	25.6
	기혼	22.0	17.0	29.3
	이혼·사별·별거	32.9	34.2	32.0
전체		24.3	22.0	27.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표 22>는 직장과의 관련성 내용들이다. 먼저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남녀 모두 이직위험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임금의 측면에서도 임금이 높을수록 이직위험도가 낮아지는 당연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나 고용형태와 관련되어 상용직보다는 임시 또는 일용직일 경우, 그리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일 경우 이직위험도가 높고, 근무하는 기업의 형태에 있어서도 민간기업보다는 정부, 공사,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할 때 이직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서도 예견된 것처럼 남녀 모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이직위험성이 낮아진다.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남성은 사업체규모의 증가에 따른 이직위험도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여성은 사업체규모가 10인을 넘어가면 이직위험도의 하락폭이 남성에 비해 작다. 이는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제조업이 많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들의 이직위험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40%대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여성의 경우에 더욱 명확하여 여성의 43.9%는 이직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과 이직위험도: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34세 청년 임금 근로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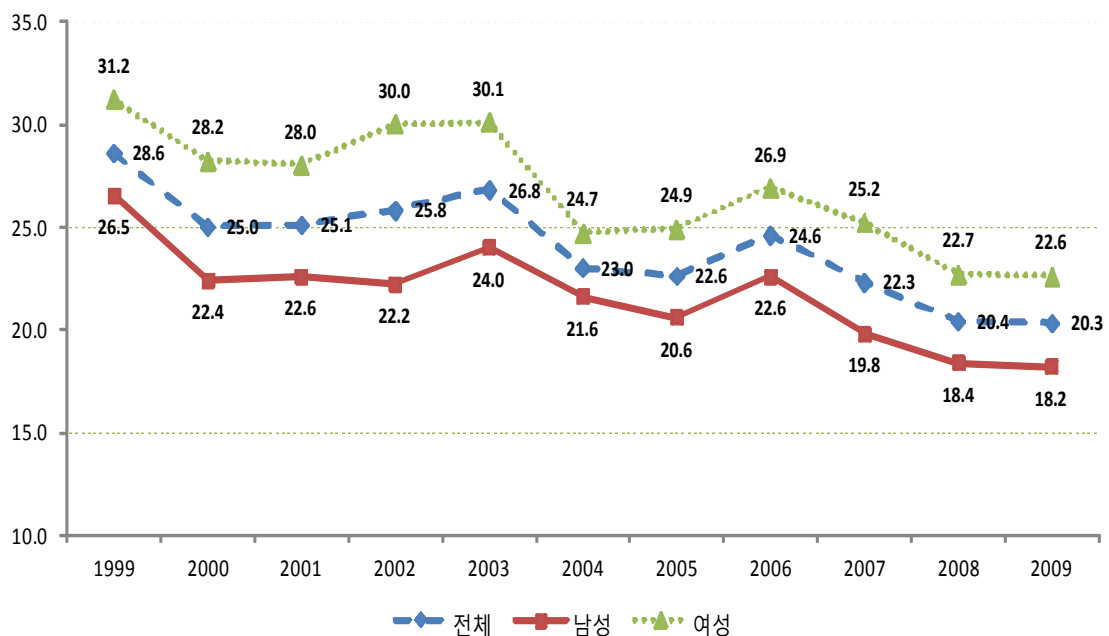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근속기간	0-<1년	29.5	27.7	31.3
	1-<2년	29.9	27.9	32.2
	2-<5년	20.9	18.8	23.8
	5-<10년	12.5	9.9	16.1
	10년 이상	8.8	7.5	9.8
임금	0~<100만원	35.4	36.1	35.1
	100~<200만원	21.3	21.4	21.2
	200~<300만원	10.2	10.0	10.6
	300만원 이상	9.3	7.9	14.3
종사상 지위	상용직	21.1	19.0	23.6
	임시직	40.3	40.6	40.0
	일용직	37.9	33.5	45.2
고용형태	정규직	20.6	18.6	23.1
	비정규직	35.3	34.2	36.2
기업형태	공공부문	10.2	8.7	11.6
	민간 및 기타 부문	25.6	23.1	28.7
사업체규모	1-4인	32.0	28.3	35.5
	5-9인	28.1	27.4	28.8
	10-29인	24.0	23.1	25.3
	30-99인	22.6	21.0	25.0
	100-299인	18.8	17.0	21.4
	300인 이상	18.2	14.7	22.3
산업	제조업	23.4	20.8	28.7
	건설업	26.9	25.5	36.2
	도소매 판매업	27.9	24.4	31.8
	음식 및 숙박업	40.6	36.9	43.9
	운수업	22.0	23.6	18.9
	통신업	19.4	20.3	18.2
	금융 및 보험업	15.8	12.2	18.5
	부동산 및 임대업	26.0	23.7	29.4
	사업서비스업	22.1	18.2	2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2.6	9.7	17.0
	교육서비스업	21.9	20.3	22.2
	보건 및 사회복지업	21.2	18.8	21.8
	오락, 방송 및 공연	29.9	31.1	28.1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	26.4	23.7	29.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이외에도 오락, 방송 및 공연업이나 도소매 판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분야도 이직위험도가 평균치보다 높다. 반면 이직위험도가 낮은 산업으로는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이 두드러진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의 분야에서는 남성의 이직위험도가 9.7%로 상당히 낮은 반면, 여성은 이직위험도가 17.0%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안은 없다.¹⁵⁾ 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이거나 단기계약직 근로자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찰연도에 따라서는 [그림 19]와 같이 남녀 모두 1999년 이후 완만하게나마 이직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에서 2003년 이직위험도가 갑자기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신용대란으로 인해 정(+)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반대로 줄어들었다는 역사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직위험도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위험도의 성별 격차는 관찰기간 동안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제기한다.

[그림 19] 연도별 이직위험도(%)의 추이: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15~34세 청년 임금근로자



■ 이직의 결정요인 추정

15)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태가 정부, 공사 등 공공기관일 경우 여성의 이직위험도가 낮다는 결과와 대비된다.

앞의 기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근로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로짓모형(logit model)을 추정하기로 한다. 종속변수로는 일자리를 계속하였을 경우 '0'의 값을,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경우 '1'의 값을 지니는 질적 변수(qualitative variable)를 사용하며, 설명변수로는 연령, 교육기간,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등의 인구 변수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취업한 일자리의 특성 변수로 근속기간, 월평균 임금, 종사상 지위, 기업형태, 기업규모, 직장 내 노조유무, 산업 등을 사용하였다.

이밖에 이직위험도, 즉 고용안정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간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관찰연도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고, 보이지 않는 직장의 이질성을 대리하는 변수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사용하였다.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도 이직여부에 중요하다. 그러나 2001년의 조사에서는 정규직 여부를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킬 경우 유효표본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정규직 여부는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가구의 특성도 이직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가구 총소득(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을 사용한다. 현실적으로 여성의 경우 가구 내 다른 구성원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구 총소득은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을 대신하는 대리변수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⁶⁾

추정결과는 <표 23>에 나타나 있으며, 대부분의 설명변수에 대해 앞의 기초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남녀 전체적으로 이직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임금수준과 종사상 지위, 그리고 직장 내 노조 유무이다. 특히, 임금수준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큰 영향을 주어 임금이 1% 상승하면 이직위험성은 1% 이상 줄어든다. 사업장 형태도 중요한 영향을 주어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업장일 경우 이직 위험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때 직장에 계속 근무할 확률이 높아 사회보험 가입이 이직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추정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령에 따라서는 15~24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직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은 문제점이 있다. 성별로 남녀 사이에 차이가 있어 남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직위험성이 높아지나 여성은 반대로 이직위험

16)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남성 혼자 취업하고 있다. 반면 기구의 자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그 금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남성에 대한 이직위험도의 계량분석에서는 남성의 임금과 가구총소득이 밀접한 공분산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성이 낮아진다.

② 교육기간의 효과는 남녀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는데, 남성은 교육기간이 길수록 이직위험도가 낮아지는 반면 여성은 교육기간에 따라 이직위험도도 높아진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¹⁷⁾ 비록 추정계수의 크기는 작지만 이러한 추정결과는 여성에게 있어 고학력이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③ 혼인상태로는 남성은 기혼일 경우 미혼에 비해 이직위험도가 낮다. 그러나 여성은 반대로 기혼일 때 이직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 이는 결혼과 이에 따른 가사, 출산, 육아 부담이 여성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④ 전체적으로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이직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여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⑤ 근속기간이 길고 임금이 많을수록 이직위험도는 낮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근속기간과 임금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크다.

⑥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경우 남녀 모두 이직의 위험성이 높다. 기업 형태에 있어서도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 이직위험도가 낮다. 그러나 직장의 규모는 남녀 모두 이직위험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⑦ 직장 내 노조가 있거나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남녀 모두 이직위험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⑧ 산업에 따라 제조업을 기준으로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이직위험성이 낮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⑨ 연도에 따라서도 2000년대 들어 [그림 19]와 같이 다소의 부침이 있지만 남녀 모두 이직위험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¹⁸⁾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이직위험도가 다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9]와는 다른 결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이직위험도가 실제로는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7)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모든 임금근로자 표본을 대상으로 교육기간(년수) 대신 교육가변수를 사용하여 추정을 하면,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은 유의하지 않으나 4년제 대졸의 경우에는 이직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우정·최민식(2011)의 연구결과와 동일 선상에 있다.

18) 이러한 추정결과는 교육을 제외하고 이우정·최민식(2011)의 결과와 동일하다.

<표 23> 이직 결정요인의 추정결과: 학교를 졸업/중퇴한 15~34세 청년 임금근로자

설명변수	전체	남성	여성
연령대(15~24세 기준)			
25~29세	0.10691(0.048)	0.15841(0.074)	0.02039(0.773)
30~34세	0.02449(0.704)	0.28186(0.005)	-0.19285(0.032)
교육기간(년)	-0.00562(0.588)	-0.03309(0.018)	0.02968(0.061)
가구주와의 관계(가구주 기준)			
배우자	-0.03072(0.676)	-0.10989(0.545)	-0.55657(0.000)
자녀 및 기타 친인척	-0.32536(0.000)	-0.29364(0.000)	-0.51411(0.000)
혼인상태(미혼 기준)			
기혼	-0.11651(0.085)	-0.19559(0.018)	0.43414(0.001)
이혼·사별·별거	0.03077(0.842)	0.31919(0.182)	-0.13651(0.511)
가구 총소득의 자연대수 값	0.08560(0.006)	0.14968(0.001)	0.05659(0.203)
근속기간(년)	-0.07464(0.000)	-0.09758(0.000)	-0.05847(0.000)
월평균 임금의 자연대수 값	-0.67806(0.000)	-1.02252(0.000)	-0.44730(0.000)
종사상 지위(상용 기준)			
임시	0.36382(0.000)	0.49096(0.000)	0.27873(0.000)
일용	0.16837(0.087)	0.01968(0.885)	0.39932(0.007)
기업형태(0: 민간 및 기타 1: 공공)	-0.55415(0.000)	-0.74709(0.001)	-0.38202(0.044)
기업규모(종업원 수)의 자연대수 값	0.00613(0.494)	0.01467(0.277)	0.00039(0.975)
직장 내 노조유무(0: 없음 1: 있음)	-0.40072(0.000)	-0.44985(0.000)	-0.33015(0.001)
산업(광공업 및 수도, 가스업 기준)			
건설	0.13358(0.109)	0.07007(0.475)	0.49843(0.006)
도소매	-0.10598(0.068)	-0.12634(0.114)	-0.11021(0.202)
음식숙박	0.17812(0.035)	0.20593(0.087)	0.13452(0.269)
운수업	-0.08194(0.477)	-0.01104(0.939)	-0.41347(0.040)
통신업	0.08061(0.571)	0.16705(0.381)	-0.09581(0.661)
금융 및 보험	-0.33735(0.002)	-0.29643(0.098)	-0.41992(0.003)
부동산 및 임대업	-0.20287(0.244)	-0.30900(0.199)	-0.12557(0.627)
사업서비스	-0.06114(0.401)	-0.09972(0.322)	-0.04964(0.647)
공공, 행정, 사회보장	-0.07843(0.823)	-0.06332(0.911)	-0.20470(0.649)
교육서비스	-0.40863(0.000)	-0.46935(0.007)	-0.45908(0.000)
보건 및 사회복지	-0.08340(0.350)	0.14746(0.486)	-0.18831(0.073)
오락, 방송 및 공연	-0.03191(0.783)	-0.15988(0.301)	-0.13033(0.480)
기타 공공/수리/개인	-0.19939(0.038)	-0.18063(0.065)	-0.24349(0.080)
국민연금 가입여부(1: 가입)	-0.23915(0.002)	-0.20806(0.065)	-0.25686(0.016)
고용보험 가입여부(1: 가입)	-0.29165(0.000)	-0.29602(0.009)	-0.31952(0.003)
연도 효과(1999년 기준)			
2000년	1.05671(0.000)	1.09773(0.000)	1.02244(0.000)
2001년	1.05284(0.000)	1.13520(0.000)	0.98275(0.000)
2002년	1.24580(0.000)	1.30283(0.000)	1.20990(0.000)
2003년	1.39285(0.000)	1.51691(0.000)	1.27920(0.000)
2004년	1.22563(0.000)	1.46995(0.000)	1.00784(0.000)
2005년	1.28838(0.000)	1.44051(0.000)	1.14057(0.000)
2006년	1.42633(0.000)	1.58521(0.000)	1.28820(0.000)
2007년	1.33356(0.000)	1.43024(0.000)	1.25005(0.000)
2008년	1.32154(0.000)	1.51691(0.000)	1.13873(0.000)
2009년	1.25386(0.000)	1.41686(0.000)	1.10676(0.000)
성별(남성 기준)	0.09462(0.050)	-	-
상수항	0.98471(0.000)	2.44125(0.000)	0.05831(0.877)
표본수	17,875	9,777	8,098
LR chi2	1625.03	1000.77	689.40
Pseudo R2	0.0836	0.1001	0.0736

주: 괄호 안의 값은 P>|z|

6. 소결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이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이직을 결정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을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청년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 미취업자 및 NEET의 절반 이상은 직장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자발적 이직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이직위험도가 24.3%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이직위험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심층적 분석을 위해 일자리를 계속하였을 경우 '0'의 값을, 일자리를 그만두었을 경우 '1'의 값을 지니는 질적 변수(qualitative variable)를 사용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 임금근로자의 이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임금수준과 고용형태(상용직 여부)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직장 내 노조유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추정결과는 얻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배경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임금수준이 이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추정결과는 인적자본이론, 직무경쟁이론, 직무할당이론의 세 이론 중 인적자본이론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 취업자의 빈번한 이직은 근본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청년취업난의 상당 부분은 일궁합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지도의 강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정보시스템의 확충 및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등을 통해 구직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이 된 이후의 사후적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의 고용서비스는 취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사후적 지원은 거의 없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직위험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V. 청년의 재취업

1. 종사상 지위의 변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매년 직장이력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직장 이동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의 결정요인 및 임금(또는 소득)변화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의 정보가 모두 관찰된 사례로 한정한다.¹⁹⁾

15~34세 청년의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의 종사상 지위는 <표 24>에 나타나 있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남녀를 합하여 73.8%가 다음 직장에서도 상용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이전 직장이 임시·일용직인 경우에도 52.4%는 다음 직장에서도 상용직으로 재취업하였다. 한편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용직으로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임금근로를 하였던 청년의 9.6%는 자영업 부분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

<표 24> 15~34세 청년의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 명)

			다음 직장					소계
			상용	임시·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이 전 직 장	여성	상용	72.7	17.4	2.3	5.2	2.5	100.0(1,496)
		임시·일용	51.2	43.0	1.1	4.0	0.7	100.0(810)
		소계	65.2	26.4	1.9	4.7	1.9	100.0(2,306)
	남성	상용	74.6	12.6	3.8	7.9	1.1	100.0(1,825)
		임시·일용	53.5	40.6	0.8	4.2	0.8	100.0(861)
		소계	67.9	21.6	2.9	6.7	1.0	100.0(2,686)
	전체	상용	73.8	14.7	3.1	6.7	1.7	100.0(3,321)
		임시·일용	52.4	41.8	1.0	4.1	0.8	100.0(1,671)
		소계	66.6	23.8	2.4	5.8	1.4	100.0(4,992)

주: 괄호 안의 값은 해당되는 표본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다음의 <표 25>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의 종사상 지위가 어

19) 1998년 제1차에서 2009년 제12차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정리하면 전 직장을 그만 둔 사례가 모두 16,871건 발견된다. 이 중에서 78.3%인 13,204건은 이후 재취업한 일자리 정보가 있고, 나머지 21.7%(3,667건)은 재취업 직장의 정보가 없다. 재취업 당시의 연령이 15~34세로 재취업한 청년의 사례는 5,532건으로 전체 재취업 건수의 41.9%를 차지한다.

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나이가 젊을수록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임시·일용직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이는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벗어나기 어려워짐을 보여준다.

학력별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에서 다시 상용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도 학력이 높을수록 임시·일용직에서 벗어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되어 종사상 지위의 결정에 있어 학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표 25> 응답자 특성과 종사상 지위의 변화

(단위: %)

구분				남성		전체		
		상용 → 상용	임시·일용 → 상용	상용 → 상용	임시·일용 → 상용	상용 → 상용	임시·일용 → 상용	
연령	15~34세	72.7	51.2	74.6	53.5	73.8	52.4	
	35~49세	57.6	30.4	59.9	33.3	59.0	31.6	
	50~59세	53.6	27.0	56.5	24.2	55.3	25.8	
	60세 이상	48.6	24.5	53.2	19.4	52.0	21.9	
15~34세 청년	학력	중졸	58.3	25.0	68.1	47.5	66.4	39.6
		고졸	70.5	46.0	70.7	45.9	70.6	45.9
		전문대졸	76.7	51.4	76.9	58.5	76.8	54.7
		대졸 이상	73.4	62.8	81.4	74.8	77.7	67.6

주: 연령, 학력은 재취업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2. 고용형태의 변화

<표 26>은 15~34세 청년의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의 고용형태를 보인다.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70.0%는 다음 직장에서도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이전 직장이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47.7%만이 다음 직장에서도 정규직으로 이동하였다. ‘정규직 → 정규직’ 이동 비율은 성별 격차가 크지 않으나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중은 남성 51.6%, 여성 43.7%로 남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상당수가 직장이동을 통해 정규직으로 경제적 지위상승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임금근로자의 43.4%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다. 남녀를 비교하면 ‘비정규직 → 비정규직’으로 재취업된 비율은 남성 40.2%, 여성 46.9%로 여성이 높다. 이는 직장이동을 통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여성

보다 남성에게서 더욱 활발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여성의 ‘비정규직 → 정규직’ 이동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은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표 26> 15~34세 청년의 고용형태의 변화²⁰⁾

(단위: %, 명)

			다음 직장					소계
			임금근로		자영업 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이 전 직 장	여성	정규직	68.5	21.5	2.4	5.4	2.2	100.0(873)
		비정규직	43.7	46.9	1.7	5.6	2.2	100.0(530)
		소 계	59.2	31.1	2.1	5.5	2.2	100.0(1,403)
	남성	정규직	71.3	14.7	4.4	8.5	1.3	100.0(1,117)
		비정규직	51.6	40.2	1.2	6.3	0.8	100.0(519)
		소 계	64.5	23.4	3.3	7.7	1.1	100.0(1,636)
	전체	정규직	70.0	17.7	3.5	7.1	1.7	100.0(2,657)
		비정규직	47.7	43.4	1.4	5.9	1.5	100.0(1,481)
		소 계	62.1	26.9	2.7	6.7	1.6	100.0(4,138)

주: 괄호 안의 값은 해당되는 표본 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표 27>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나이가 젊을수록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15~34세의 청년은 정규직을 유지하면서 직장이동을 할 가능성이 70.0%이나 나이가 들수록 그 비중이 하락하여 50대에는 49.1% 수준까지 낮아진다. 반대로 이전 직장이 비정규직인 임금근로자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할 가능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 15~34세는 그 비중이 43.4%이지만 50대 64.4%, 60대 이상 76.8%로 상승한다.

학력별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전문대졸 여성의 ‘정규직 → 정규직’ 이동 가능성이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보다 높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는 청년 노동 시장에서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취약한 위치를 반영한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였다 라도 학력이 높을수록 재취업을 통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확률이 남녀 모두 높아지지만 동일한 학력이라도 여성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다.

이직사유와 관련되어서도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에 ‘정규직 → 정규직’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을 벗어날 가능성이 남녀 공히 높다. 그

20) 한국노동패널조사는 2000년 정규직 여부의 고용형태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찰된 표본수가 줄어들었다.

러나 15~34세에서는 그 형태가 다르다. <표 10>의 마지막 행과 같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때 비자발적 이직보다 ‘정규직 → 정규직’으로 이동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확률이 높지만 남성은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다.

<표 27> 응답자 특성과 고용형태의 변화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정규 → 정규	비정규 → 비정규	정규 → 정규	비정규 → 비정규	정규 → 정규	비정규 → 비정규	
연령	15~34세	68.5	46.9	71.3	40.2	70.0	43.4	
	35~49세	51.8	57.6	56.9	50.0	55.1	54.6	
	50~59세	47.4	67.7	50.2	60.3	49.1	64.4	
	60세 이상	38.1	75.0	42.1	78.1	41.0	76.8	
15~34세	학력	중졸	47.1	66.7	64.2	44.2	61.6	51.9
		고졸	66.1	46.6	66.9	45.8	66.5	46.1
		전문대졸	72.1	51.3	72.8	39.3	72.4	45.5
		대졸 이상	69.9	38.8	79.2	21.4	75.0	31.7
청년	이직 사유	자발적	69.5	44.7	71.0	40.3	70.3	42.4
		비자발적	62.8	58.8	72.4	39.7	68.7	48.9

주: 연령, 학력은 재취업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3. 재취업과 실질 임금의 변화

□ 청년층의 높은 임금상승폭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주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임금근로→임금근로」로 제한하여 재취업에 따른 임금변화의 폭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15~34세 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 13.9만원의 임금상승효과가 있다.²¹⁾ 우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34세의 청년층에서 직장이동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크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장이동으로 인한 임금변화가 감소하여 50대에는 -2.4만원, 60대 이상에서는 -15.9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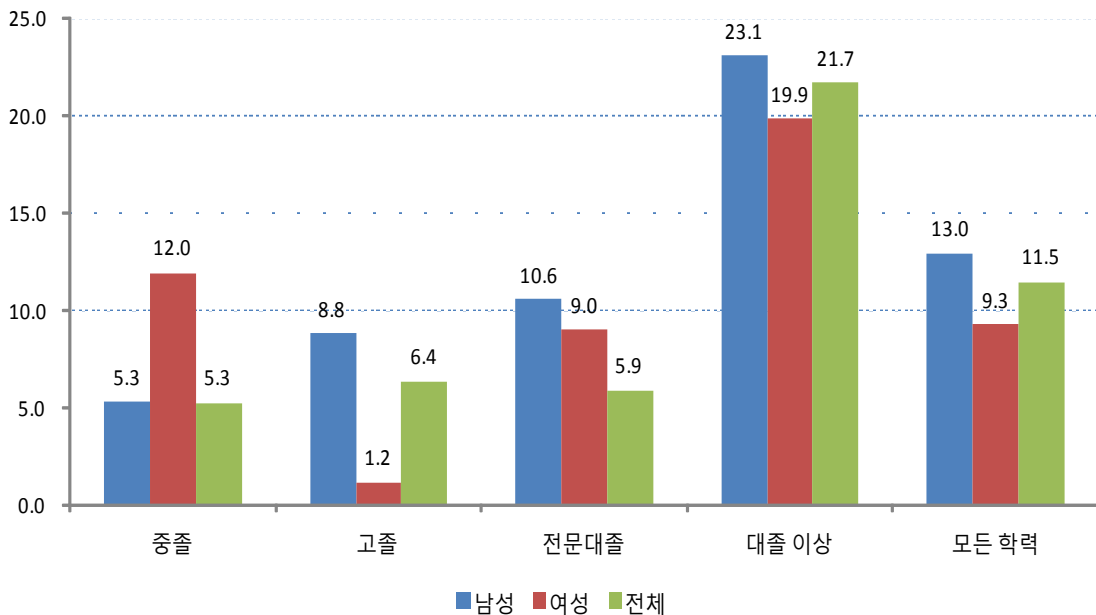
21) 여기에서의 연령과 학력은 재취업 당시의 연령 및 학력이다. 또한 임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을 사용하였다.

□ 여성보다 높은 남성의 임금상승폭

분석대상을 15~34세로 좁혀 특성별 임금변화를 보면, '정규 → 정규'으로 이동할 경우 남녀 모두 임금이 높아지지만 '정규 → 비정규' 이동 시에는 임금하락이 발생한다. 특징적 사실은 '비정규 → 비정규'로 이동하더라도 임금이 평균 12.2만원 상승한다는 것이다. 성별로는 모든 직장 이동 형태에 대해 남성의 임금상승폭이 여성에 비해 크다. 구체적으로 '정규 → 정규' 이동시 남성은 15.5만원의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성은 임금상승폭이 7.3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임금상승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0]의 마지막 막대그래프들과 같이 직장이동을 통해 남성은 13.0%의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여성은 임금상승률이 9.2%에 불과하다.²²⁾

[그림 20] 15~34세 청년의 재취업에 따른 임금증가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22) 임금증가율을 개개인별로 계산한 뒤, 집단별로 이 값의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전 직장의 임금, 즉 분모의 크기에 따라 임금증가율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한계가 있다. 같은 10만원의 증가라도 이전 직장 임금이 50만원인 경우와 300만원인 경우 임금증가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 결과 이전 직장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이 평균증가율 계산에 있어 과대 대표(over represented)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집단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증가율을 계산하도록 한다.

즉, 임금증가율은 $\sum_{i=1}^n \Delta w_i / w_i$ 가 아니라 $\overline{\Delta w} / \overline{w}$ 로 정의된다.

□ 고학력자의 높은 임금상승 규모

학력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이동으로 인한 임금상승폭도 크다. 구체적으로 15~34세 청년의 경우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직장이동으로 인해 임금이 30.7만원 증가하지만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그 증가폭이 11.3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직장이동의 임금상승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은 저학력자에서 더욱 심하다. 청년 고졸자의 임금상승폭은 6.8만원에 그치고 있고 중졸의 경우에도 7.3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림 20]에서 중졸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력수준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의 임금상승폭이 크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상승폭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재취업을 통해 21.7%의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졸자는 6.4%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따라서는 자발적 이직의 임금상승폭이 크다. 자발적 이직 시 15.9만원의 임금상승이 있었으나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3.9만원의 임금상승만이 발생하였다. 근속기간에 따라서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은 재취업을 통해 18.4만원의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5년에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상승폭이 8.2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이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오래수록 직장이동을 통한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표 28>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10년 이상 근속한 여성의 경우 직장이동으로 임금이 18.2만원이나 떨어지고, 남성도 28.8만원의 임금하락이 발생한다. 미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미취업기간에 따라 임금증가폭이 점차 줄어들다가 1년을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U자형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미취업기간이 길수록 이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고, 따라서 임금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상승률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전 직장의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미취업기간이 장기간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장기 미취업자의 경우 미취업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등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노력하였을 상황이다. 이와 관련되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표 28> 재취업에 따른 실질임금의 변화: 15~34세 청년

(단위: 만원)

		임금 변화					
		정규→정규	정규→비정규	비정규→정규	비정규→비정규	전체	
연령	15~34세	11.9	-11.2	37.6	12.2	13.9	
	35~49세	8.1	-21.2	20.2	8.6	5.3	
	50~59세	-11.9	-35.5	13.2	13.6	-2.4	
	60세 이상	-13.6	-58.7	1.0	-2.5	-15.9	
15 ~ 34 세 청 년	성별	남 성	15.5	-6.8	40.1	13.4	17.7
		여 성	7.3	-14.9	34.5	11.1	9.6
	학력	중졸	8.0	-14.9	25.5	10.5	7.3
		고졸	5.5	-7.6	18.9	10.3	6.8
		전문대졸	7.7	-18.0	38.3	9.5	11.3
		대졸 이상	25.8	-11.5	64.7	24.4	30.7
	이직 사유	자발적	13.6	-9.2	39.9	13.2	15.9
		비자발적	2.5	-19.0	24.9	7.5	3.9
	근속 기간	0-<1년	13.2	-4.8	44.4	10.0	18.4
		1-<2년	10.4	-11.3	28.3	17.0	11.8
		2-<5년	11.9	-11.2	24.5	15.1	10.0
		5-<10년	15.8	-35.2	27.0	6.3	8.2
	미취업 기간	0-<3개월	13.0	-6.7	26.5	10.1	12.6
		3-<6개월	9.0	-9.2	21.4	12.7	9.8
		6-<1년	2.2	-19.9	20.7	8.5	3.7
		1-<2년	13.7	-11.3	41.4	1.4	12.9
2-<3년		21.5	-9.5	81.7	33.8	39.2	

주: 임금은 2010년을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값이고, 연령 및 학력은 재취업 시점의 상태이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2009

5. 소결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이직 후 재취업 경험이 있는 15~34세 청년들의 고용형태 변화 및 임금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정규직 → 비정규직’ 이동을 제외하고는 직장이동을 통해 임금이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층들의 빈번한 이직의 대부분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발적 행위임을 시사한다.

청년의 빈번한 이직이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지라도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빈번한 이직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학교를 졸업한 초

기부터 자신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직의 빈도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이직은 합리적 이직이던 비합리적 이직이던 개인과 사회에 실업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직장생활 동안 축적한 인적자본의 일부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추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취업난의 상당 부분은 일공합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지도의 강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정보시스템의 확충 및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등을 통해 구직기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직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이 된 이후의 사후적 지원이 중요하다. 현재의 고용서비스는 취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사후적 지원은 거의 없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직위험성이 높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2012a), 「청년취업난의 악화(Ⅰ): 피해자는 누구인가?」, 『월간 노동리뷰』, 제85호,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12b), 「청년취업난의 악화(Ⅱ):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월간 노동리뷰』, 제89호,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윤자영(2011),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이인실(2013), 『청년 취업난의 원인: 직장이직을 중심으로』, 2013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문, 한국노동경제학회.
- 금재호·조준모(2002), 「실업자의 재취업과 직장상실비용」, 『경제학연구』50(1), pp. 209~241.
- 금재호(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최민식(2008), 「직장이동의 유형에 따른 단기임금변화」, 『노동경제논집』 31(1) pp. 29~57
- 김혜원(2006),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변동요인 분석」, 『월간 노동리뷰』 50, 한국노동연구원, pp. 77~87.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pp. 81~106
- 류기철(2001),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pp. 207~230
- 류재우 「근래의 상용직 비중 변화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 pp. 253~282
- 박진희(2007), 「여성 직장이동의 특징」, 『여성경제연구』 제4권 (2), pp. 25~44.
- 방하남(2000),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변화: 노동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손주영(2012), 『직무스트레스가 여성 관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윤윤규(2008), 『비자발적 이직자의 일자리 이행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우정, 「여성근로자의 이직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전용일,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통계청(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채창균 외(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효미(2006), 「KLIPS에 나타난 출산의 특징과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이동」, 『월간 노동리뷰』 19, 한국노동연구원, pp. 77~87.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Addison, J. T. and Portugal, P.(1989), “Job Displacement, Relative Wage Changes, and Duration of Unemploy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7, pp. 281~302

Banerjee, Abhijit V. and Andrew F. Neuman(1993), “Occupational Choice and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pp. 274~298.

Silber, J.(1989), “On the Measurement of Employment Segregation,” *Economics Letters* 30, pp.237~243.

Stevens, Ann Huff(1997), “Persistent Effects of Job Displacement: The Importance of Multiple Job Loss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pp. 165~188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부표

<부표 1> 성별·연령대별 재학 중인 청년의 비중(%)

구 분		연령대				
		18~20세	21~23세	24~26세	27~29세	18~29세 전체
남성	1997년	61.6	30.9	21.6	4.3	25.8
	1998년	58.8	32.6	20.2	4.1	25.3
	1999년	58.8	31.5	23.2	5.4	26.6
	2000년	54.8	34.5	23.6	6.5	26.9
	2001년	54.4	35.4	25.2	6.4	27.6
	2002년	58.6	35.7	28.0	6.5	29.1
	2003년	61.0	36.3	25.2	6.1	28.9
	2004년	60.1	35.0	25.5	5.6	27.9
	2005년	61.8	37.5	25.6	5.0	28.5
	2006년	66.7	41.1	25.2	6.1	29.9
	2007년	67.3	43.7	25.7	6.3	30.3
	2008년	69.0	46.7	29.0	7.1	31.8
	2009년	70.0	45.6	28.9	6.8	31.8
	2010년	67.4	46.3	28.5	7.7	32.3
	2011년	67.0	46.2	28.5	6.8	32.7
2012년	64.4	48.9	29.5	6.5	33.7	
2013년	67.4	50.6	31.3	6.9	36.3	
여성	1997년	56.2	22.0	5.5	1.9	19.9
	1998년	56.9	24.0	5.2	2.1	20.6
	1999년	59.2	24.7	6.6	2.6	22.0
	2000년	60.9	24.8	6.7	3.5	23.1
	2001년	61.9	26.8	6.6	3.8	24.1
	2002년	64.0	28.5	7.5	3.6	25.1
	2003년	67.4	29.5	8.0	3.0	25.4
	2004년	66.4	27.7	7.8	2.6	23.8
	2005년	68.8	28.5	7.8	2.9	24.1
	2006년	72.9	30.7	8.0	3.7	25.3
	2007년	77.6	36.2	8.7	4.1	27.2
	2008년	77.3	35.9	9.3	4.4	28.0
	2009년	76.9	36.5	10.0	4.3	28.7
	2010년	75.3	36.4	9.2	3.8	28.6
	2011년	75.1	36.7	9.2	3.8	29.9
2012년	75.0	37.0	9.7	3.0	30.1	
2013년	76.7	39.2	10.0	3.2	3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부표 2> 성별·연령대별 휴학 중인 청년의 비중(%)

구 분		연령대				
		18~20세	21~23세	24~26세	27~29세	18~29세 전체
남성	1997년	5.7	10.8	1.8	0.4	3.8
	1998년	7.6	15.4	2.8	0.6	5.4
	1999년	9.6	20.4	4.7	1.0	7.3
	2000년	10.2	23.0	5.0	1.1	8.0
	2001년	12.3	23.5	6.2	1.0	9.2
	2002년	11.9	24.5	8.5	1.2	10.0
	2003년	14.2	26.0	6.8	1.5	10.8
	2004년	13.6	27.6	8.6	2.0	11.6
	2005년	14.7	28.6	9.4	2.2	12.0
	2006년	14.2	28.8	10.6	2.3	12.1
	2007년	11.3	26.6	9.4	3.4	11.0
	2008년	11.1	25.5	9.0	3.2	10.4
	2009년	10.3	29.2	11.6	2.9	11.6
	2010년	10.4	28.4	12.4	3.3	12.1
	2011년	10.7	27.7	12.0	3.1	12.0
2012년	11.1	27.3	10.6	3.1	12.1	
2013년	9.7	23.5	10.0	3.1	11.1	
여성	1997년	1.3	0.9	0.3	0.3	0.6
	1998년	2.3	2.5	0.6	0.2	1.3
	1999년	3.0	3.9	1.3	0.4	2.0
	2000년	3.2	4.5	1.1	0.4	2.2
	2001년	2.9	5.2	1.4	0.4	2.4
	2002년	3.3	5.4	1.3	0.5	2.6
	2003년	4.2	4.6	1.6	0.4	2.7
	2004년	4.6	6.1	2.0	0.7	3.3
	2005년	5.1	6.7	2.0	1.2	3.6
	2006년	5.3	6.1	2.0	1.2	3.4
	2007년	4.5	6.4	2.6	1.3	3.5
	2008년	4.7	8.0	2.1	1.2	3.7
	2009년	4.5	9.7	2.3	1.2	4.1
	2010년	4.4	10.6	2.6	1.3	4.4
	2011년	5.0	10.8	2.5	1.1	4.7
2012년	4.3	10.1	2.9	0.7	4.4	
2013년	3.7	8.3	3.1	0.7	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부표 3> 18~29세 졸업·중퇴한 청년의 성별·학력별 분포의 추이: 1998~2013년

구 분		연령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남성	1997년	9.0	61.6	13.1	16.3	
	1998년	7.7	60.1	13.5	18.6	
	1999년	7.3	59.0	15.0	18.7	
	2000년	7.5	55.9	16.6	20.0	
	2001년	6.8	54.5	18.0	20.8	
	2002년	7.0	51.6	20.3	21.1	
	2003년	5.4	49.9	21.1	22.1	1.4
	2004년	5.4	46.7	23.3	23.2	1.4
	2005년	5.0	45.4	23.7	24.4	1.5
	2006년	5.0	43.6	24.5	25.5	1.5
	2007년	4.4	40.1	27.5	26.6	1.4
	2008년	3.9	39.2	26.7	29.1	1.1
	2009년	3.5	38.2	26.9	30.1	1.2
	2010년	3.3	39.0	26.8	29.9	1.0
	2011년	3.0	35.9	26.7	33.0	1.5
2012년	2.9	36.1	27.3	32.5	1.2	
2013년	2.6	36.1	27.0	32.9	1.4	
여성	1997년	5.5	64.3	15.3	14.9	
	1998년	4.6	61.1	16.5	17.9	
	1999년	3.4	58.8	18.6	18.5	
	2000년	3.9	55.5	21.1	19.5	
	2001년	3.5	53.1	23.4	20.0	
	2002년	2.7	49.8	25.3	22.2	
	2003년	2.3	45.7	27.5	23.3	1.2
	2004년	2.6	41.8	29.6	24.6	1.3
	2005년	2.4	38.4	31.8	26.0	1.4
	2006년	1.9	34.4	32.8	29.5	1.4
	2007년	2.0	32.5	34.0	29.9	1.6
	2008년	2.7	29.6	34.7	31.6	1.4
	2009년	2.7	29.0	34.8	31.8	1.6
	2010년	2.5	26.9	34.3	34.6	1.6
	2011년	2.7	26.4	34.6	35.0	1.4
2012년	2.5	23.8	36.5	35.5	1.6	
2013년	2.8	22.3	35.4	37.9	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